

제3기 감리교청소년목회전문훈련과정



다음세대를 세우는 청소년 사역자

일시_ 2012년 8월 20일(월) ~ 21일(화), 1박 2일

장소_ 엘림하우스(☎041-662-6901)

대상_ 청소년사역 담당자(교육목사, 교육사, 교육전도사, 신학생)

주최_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주관_ 교육국 청소년정책위원회



제3기 감리교청소년목회전문훈련과정

다음세대를 세우는
청소년 사역자

여러분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없는 우리교회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마 아찔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위기적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유독 목회자들만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뼈저리게 경험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없는 교회’가 이 땅에서도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은 교회의 미래를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모두가 나서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음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세우는 사역에 청소년사역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제3기 감리교청소년목회전문훈련과정’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셔서 청소년목회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며 나누는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

일정표

시간	8월 20일(월)	시간	8월 21일(화)
13:00	등록 및 접수	07:00	아침기도회
14:00	개회예배 : 청소년사역이란 무엇인가? (김선국 목사)	08:00	아침 식사
15:00	미디어 절제력, 강력한 실력이다 (권장희 소장)		청소년수련회 십계명 (정현범 목사)
16:00		09:00	청소년전도의 이론과 실제 (김성기 목사)
17:00	조별 모임	10:00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목회의 패러다임(이용환 사무국장)
18:00	저녁 식사	11:00	청소년!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 (은준관 총장)
19:00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 걸고! (최관하 교사)	12:00	점심 식사
20:00		13:00	교회의 핵심가치 (안민 교수)
21:00	조별 모임 및 자유시간	14:00	전체모임 : Q&A
22:00		15:00	폐회예배 및 수료식

강사 소개



김선국 목사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영등포중앙교회 교육목사, 교육국 청소년정책위원.
권장희 소장	고려대학교 정외과, 숭실고, 한영외고 교사. 기윤실 교사모임 창립, 초대 대표, 시민운동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YP(청소년스스로지킴이)프로그램 제안.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현재), 저서- 공부의 집중력을 확 높이는 우리 아이 게임 절제력 등.
최관하 교사	영훈고교 국어교사, 청소년 코스타 강사, 시인, 가곡 및 찬송가 작사가, 컬럼니스트, 영훈선교회 대표 간사. 저서- 너는 나에게 아름답다, 희망이 없으면 가디림도 없다, 울보 선생, 울보 선생의 울보 아이들 등 다수.
김성기 목사	감리교신학대학교, 만수중앙교회 교육목사, 스포츠선교연합회 사무총장, JD교회학교성장연구소장, 교육국 청소년정책위원.
이용환 사무국장	협성대학교 신학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연구원, 노원청소년수련관 팀장,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감독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여성가족부장관장 수상(지도자 부문), 사)아름다운청소년들 사무국장.
은준관 총장	미국 Duke University, Divinity School, 미국 Pacific School of Religion, Berkeley(Th. D),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및 기독교교육연구소 소장, 정동제일교회 담임목사,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장, TBC성서연구원장, 학교법인 실천신학대학원 이사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저서- 교육신학, 기독교교육현장론, 기독교교육자, 신학적교회론, 실천적교회론 등.
안민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롯시니 국립음악원, 로마 아르츠 아카데미, 고신대학교 부총장, 고신대 교회음악과 교수 및 교회음악과 대학원장, 코스타 강사, 부산장애인전도협회 상임이사, 음반- 유일한 길, 주님사랑 온누리예, 저서-행복콘서트

아침기도회 (Lauds)

인도자 : 정현범 목사

시작 찬양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text{♩} = 63$
 P
 Lau - da - te om - nes gen - tes, lau - da - te Do - mi - num. Lau -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da - te om - nes gen - tes, lau - da - te Do - mi - num. Lau -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b Eb Bb Cm Ab Bb⁴ - 3 Eb

시편 5편과 할렐루야 인도자와 회중

회중이 다함께 알렐루야 후렴을 두 번 부르는 것으로 시편 낭독을 시작합니다.
 인도자가 시편을 낭독함에 따라 회중이 다함께 알렐루야 후렴을 한 번 씩 부릅니다.
 마지막 시편 낭독이 끝날 때에 회중이 다함께 알렐루야 후렴을 두 번 부릅니다.

$\text{♩} = 80$
 f
 Alleluia 11
 Al - le - lu - ia, al - le - lu - ia, al - le - lu - ia! (Al - le - lu - ia)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 야
 (Al - le - lu - ia)

알렐루야(2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알렐루야(1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알렐루야(1번)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알렐루야(1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알렐루야(2번)

성서 낭독 마태복음 11:28-30 이충섭 목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묵상 찬양과 침묵 주를 찬미하나이다.....다같이

노래를 다 함께 부른 후, 6-7분 간의 침묵 시간을 갖습니다.
 낭독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기도문 다같이

마침 찬양 항상 주님께 다같이

♩ = 60

In the Lord I'll be ev-er thankful, in the Lord I will re-joice! Look to God, do not be a-
항 상 주 님 께 감 사 하 며 항 상 기 뻔 하 - 라 두 렴 없 이 기 다 리

Dm C F B \flat C \flat Dm C A C B \flat A (3)

fraid. Lift up your voi-ces, the Lord is near; lift up your voi-ces, the Lord is near. In the
며 오 시 는 주 님 찬 양 하 라 오 시 는 주 님 찬 양 하 라 항 상

Dm C F B \flat C Am Dm B \flat C F Dm C

폐회예배

인도자 : 정현범 목사

* 표는 일어서서

경배 찬송..... 주님을 찬양하라(세 번 반복)다 같이

Lau - da - te om - nes gen - tes, lau - da - te Do - mi - num. Lau -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E♭ A♭ E♭ B♭ Cm G Cm B♭ E♭ A♭ B♭ E♭

da - te om - nes gen - tes, lau - da - te Do - mi - num. Lau -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 E♭ B♭ Cm A♭ B♭⁴ 3 E♭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와 회중

인도자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 중 :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도자 :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와 이름에 있습니다.

회 중 :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같이 :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기 도 김신곤 목사

구 약 느헤미야 8:5-12 김선국 목사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읽이라

침 목 다같이

시편 교독 시편 130편 인도자와 회중

1.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 주여 내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5.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7.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
음이라
8.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서신서 낭독 에베소서 3:14-21 김성기 목사

14.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
라 아멘

찬 양 오 주님(세 번 반복) 다같이



복음서 낭독 누가복음 12:22-31 백 영 목사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7.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홀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1.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주님께 감사합니다.

응답의 찬송 오 주님(세 번 반복)..... 다같이



중보기도 다같이

- * 평화의 인사 다같이

* 찬 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다같이

* 위탁과 축복 이충섭 목사

Contents

청소년사역이란 무엇인가? _ 김선국 목사 14

미디어 절제력, 강력한 실력이다 _ 권장희 소장 19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 걸고! _ 최관하 교사 21

청소년수련회 십계명 _ 정현범 목사 23

청소년 전도의 이론과 실제 _ 김성기 목사 34

교회교육의 국가인증정책 _ 이용환 사무국장 39

청소년!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 _ 은준관 총장 48

교회의 핵심가치 _ 안민 교수 52

참고자료 1. “한국기독교교육 100년” : 역사적 유산과 위기 54

참고자료 2. 왜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여야 하는가? 71



청소년 사역이란 무엇인가?

김선국 목사 | 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 사역의 대상은 누구인가?

청소년(학생)	교사	부모
---------	----	----

청소년 사역의 제1대상은 당연히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건강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도 반드시 사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Tip1) 교사들을 위한 목회와 배려가 필요하다. 예) 교사교육, 중보기도, 위로회, 교사편지

Tip2) 부모들을 위한 목회와 배려가 필요하다. 예) 부모님초청예배, 상담, 부모교육, 사역알림

■ 청소년 사역 Base

주일예배	예배 후 분반모임	수련회
------	-----------	-----

1.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맞는 주일예배를 디자인하라. 단, 파격적인 변화는 자제하자.

2. 설교가 청소년 예배에서 매우 중요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3. 분반모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분반공부와 과연 효과적인가?
4. 수련회는 청소년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 청소년 사역 Upgrade

제자훈련 (성경공부)	친교활동 (음식, 게임 등)	비전트립 (단기선교)	특별새벽기도회	수험생을 위한 사역
스포츠 활동 (축구, 농구 등)	찬양단 세우기	새가족 관리	친구초청예배	QT

- 1) 영증등대(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부) 사역 소개
십자가DAY, 셀러브레이션 나이트, 신약한첩(성경통독), 사자와 어린양(선후배간의 MT)
CGV영화관 예배, 세나QT모임, 성경공부(BT, DT, LT), 예배에 목숨을 걸라(캠페인)

2) 친구초청예배 관련

Tip1) 일회성 초청?, 계속해서 관심?, 총동원 주일?, 예배 소개? or 복음 전파?

Tip2) 컨셉과 타이틀이 무엇인가? (이름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생명 FESTIVAL, 다모임SUNDAY, 무한초대 프로젝트 “놀러와”, 무조건, 등대로 등

■ 청소년 사역 Challenge

학교 앞 전도	학원 사역 (예배인도, CA 협조)	심방 (개인, 학교, 가정)
---------	------------------------	--------------------

1. 학교 앞 전도는 우리 교회 청소년을 심방 하는 것이고 청소년부를 홍보하는 것!
2. 학원 사역 관련해서는 별지 참조
3. 결국은 관계 사역이다. 개인적으로 심방을 하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 청소년 사역 변수

시험기간	학원	유학 (어학연수)	폭력문제	왕따문제
친구들의 영향	가정 문제 (부모님 이혼)	이성문제	선후배 관계	장애 청소년

■ 청소년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제언

1. 기도와 말씀은 기본이다. 기도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연구 및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
2. 예배 시간에 지속적으로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라. 결국 청소년들은 복음으로 변화된다.
3. 우리 교회의 조건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진실하게 헌신하라.
4. 모르면 배워야 한다. 청소년 사역 관련 책을 섭렵하라.
5. 할 수만 있으면 장기사역에 도전하라.
6. 청소년 사역은 관계사역이다. 청소년들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관계하라.
7.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역을 펼치지 말고, 자기 역량을 테스트 하면서 사역을 확장해 가라.
8.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 사역도 못한다. 실패해야 배우니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9.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 교회 상황도 잘 파악하고 대처하라.
10. 청소년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들을 관찰하라. (예) 유행어, 연예인, 노래, TV프로, 게임 등

■ 필독서

제 목	저 자	출판사
새들백 교회 청소년 사역 이야기	덕 필즈	디모데
월로우크릭 교회 청소년 사역	보 보셔스	두란노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처음 두 해	덕 필즈	디모데
우리는 중고등부 부흥을 열망하고 갈망했다	유홍설	나침반
탱크목사 중고등부 혁명	홍민기	규 장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김인환	두란노

■ 추천도서

제 목	저 자	출판사
YY 부흥보고서	이찬수	규 장
중고등부 전도의 광맥을 뚫어라	윤형진 외 7인	기독신문사
청소년부 부흥의 광맥을 뚫어라	조성익	기독신문사
청소년 리바이벌	이찬수	규 장
청소년 사역 이젠 가정이다	마크 드브리스	성서유니온선교회
청소년부 다시 세우기	최윤식	기독신문사
교사십계명	하정완	나눔사
파이프 목사의 청소년 부흥 이야기	임출호	요단출판사

■ 일반도서

제 목	저 자	출판사
육일약국 갑시다	김성오	21세기북스
스토리가 스팩을 이긴다	김정태	갤리온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김종훈	21세기북스
대한민국 20대 일찍 도전하라	박현우	라이온북스

■ 영중등대 학교 사역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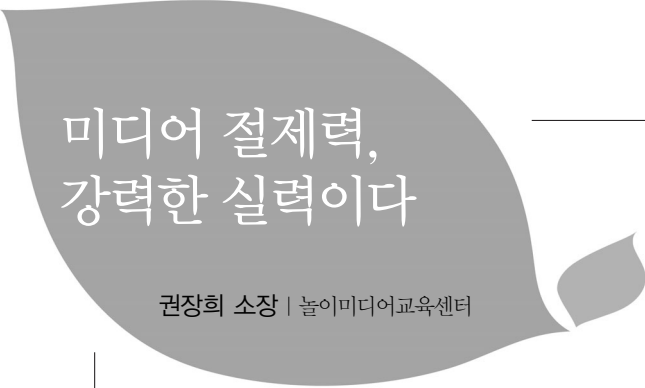
현재 2명의 청소년부 사역자들이 동역하면서 5년째 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 1) 당산중학교 목요 점심예배 인도 (2007년 3월부터)
- 2) 관악고등학교 수요 점심예배 인도 (2007년 5월부터)
- 3) 선유고등학교 수요 점심예배 인도 (2008년 3월부터)
- 4) 당산중학교 기독교반 CA (2009년 3월부터) - 1달에 1회 전일제 CA

■ 학교로 들어가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열정 있는 교회(사역자)들을 위한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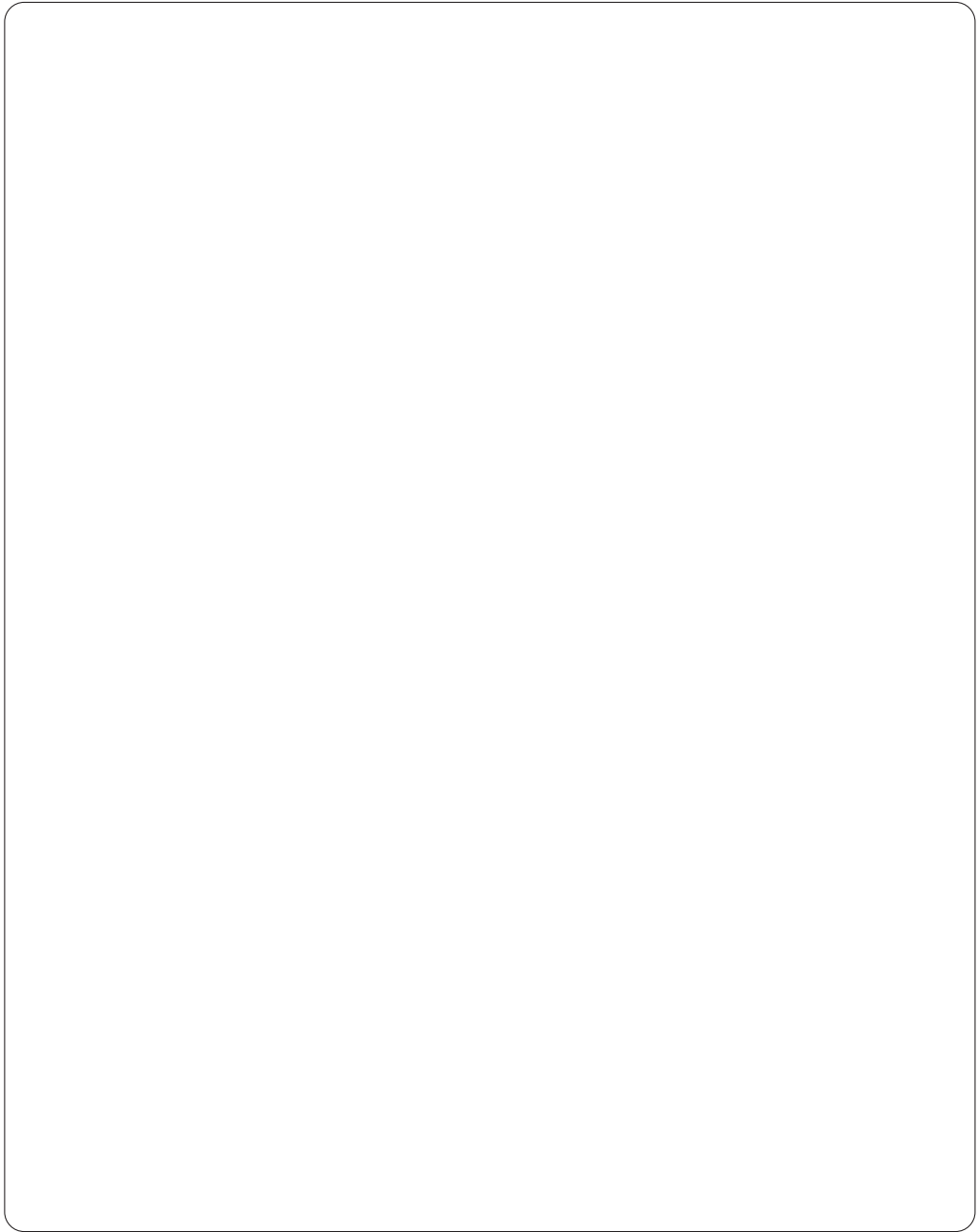
- 1) 사역하고자 하는 인근의 학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 2) 일단 부딪쳐야 한다. (기독교 교사를 찾아서 먼저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다.)
 -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기독교사는 반드시 있고 교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선생님이 기독교사인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3) 교회와 학교의 협력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지속적으로 학교에 소개하라.
 - 교회시설 이용, 장학금 지급, 특별활동 교사 지원, 학교 운동장 사용 등
 -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교육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 지원이 필요하다.
- 4) 사역자가 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반 CA, 주중 예배(기도회), QT모임을 인도하라!
 - 반드시 학교와 협의가 된 후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
 - 비공식적으로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모임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 교회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의 은사를 활용해 CA를 인도하는 방법도 있다.
- 5) 기독교사들(신우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선생님들도 사역자의 열정과 성실성을 보면 감동을 한다.
 - 가끔씩 선생님들에게 책이나 CD와 같은 선물들을 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학교로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의외로 쉽게 학교와 연계할 수도 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비공식적인 작은 모임들을 만들어 그 곳에 열정을 품고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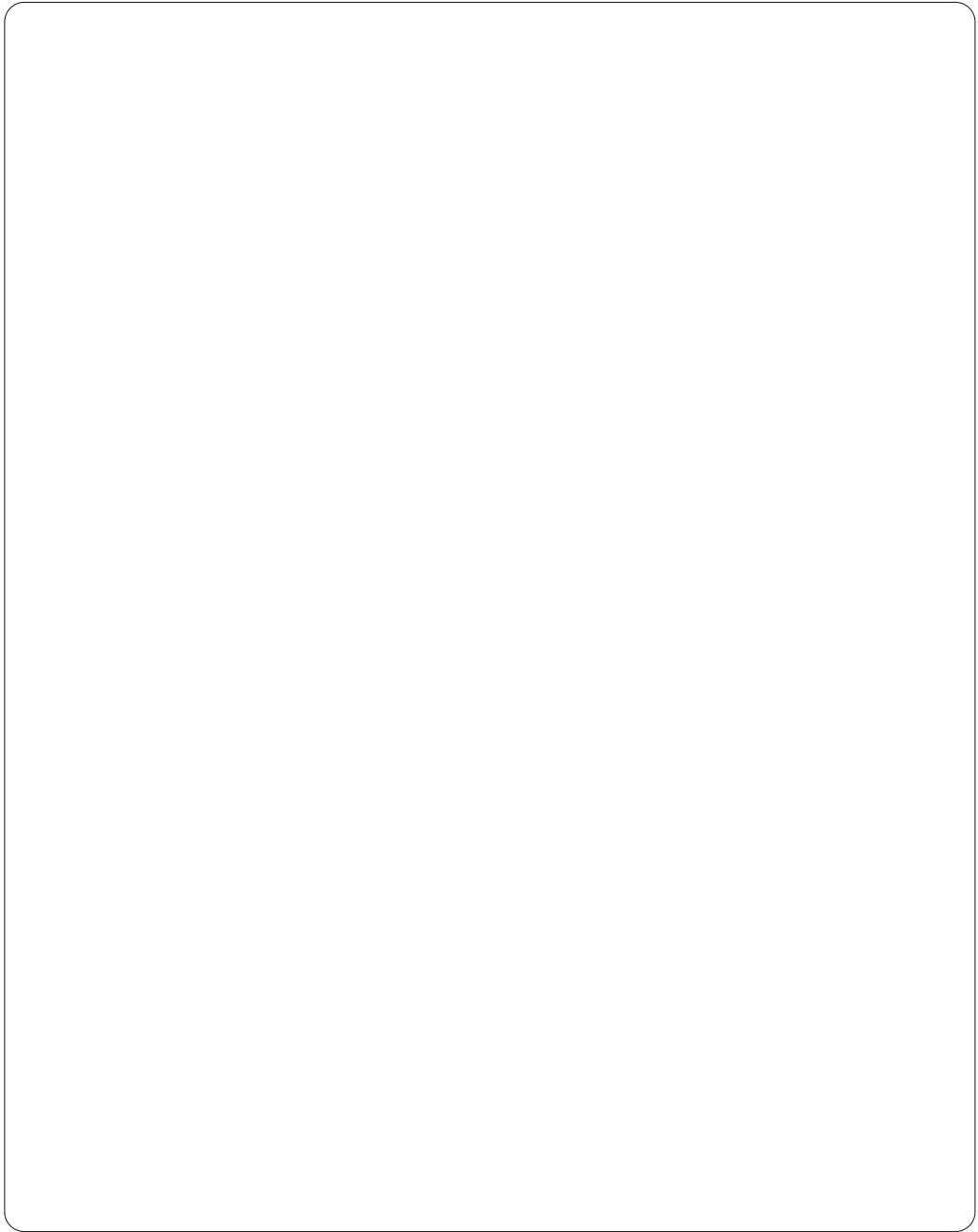
미디어 절제력, 강력한 실력이다

권장희 소장 |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 걸고!

최관하 교사 | 영훈고등학교



청소년 수련회 십계명

정현범 목사 | 교육국 차세대교육정책부

I. 청소년 수련회, 다시 생각하기?

1. 문제제기

* 여름수련회 하면 생각나는 것?

사역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중고등부였을 때 학생의 입장에서?

- 1) 새벽기도회 꼭 해야 합니까?
- 2) 성경 공부, 꼭 해야 합니까?
- 3) 소위 말하는 밥줄(성경암송), 해야 합니까?
- 4) 천로역정 같이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 5) 캠프 화이어를 왜 하나요?
- 6) 들어주는 특강 꼭 해야 합니까?

2. 교회에서 수련회를 선택할 때의 일반적인 기준?

- 1) 강사는 누구인가?
- 2) 참가비는 얼마인가?
- 3) 장소는 어디인가?
- 4)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3. 잊지 말아야 할 수련회 4대 표어 :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큰 은혜 받자.

4. 수련회에 대한 고민?

“매년 똑같이 실시되는 수련회는 이제 싫다. 뭔가 획기적인 수련회는 없습니까?”, “교회 부흥과 연관한 수련회는 할 수 없나요?”. “수련회가 끝나면 식어버리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순 없습니까?”, “집단 수용이 아닌 좋은 시설에서 할 순 없나요? 청소년들의 삶이 변화하고 예배생활의 변화를 줄 순 없을까요?”

5. 수련회의 필요성

- 1) 기독교교육의 연속성으로서의 집중적인 교육
- 2) 교실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회
- 3) 관계회복으로서의 교육기회 제공.
- 4) 공동체로서의 교회교육
- 5) 영적 체험과 영적 성숙으로서의 신앙교육
- 6) 창조교육을 통한 안식과 회복.
- 7) 기대감과 일생의 추억.

6. 좋은 수련회의 기획을 위하여

진단 → 목표설정 → 계획 → 실행 → 평가

- 1) 진단은 교육계획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원인을 해석, 확인하는 과정이다.(학생들의 만족도, 관심도/관심사들의 상황, 문제의 원인분석/정보 수집과 정리, 해석).
- 2) 목표설정은 목적과 목표와 세부목표계획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 목적 : 일반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왜 우리가 그것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
 - 목표 :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과를 예측한 사항(진단을 통한 관심사에 접근)
 - 세부목표 :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설정. 세부목표는 6하 원칙의 질문을 수반한다.

- 3) 계획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교육활동의 설정은 목표에 기초하여야 한다.
- 4) 평가는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결과, 방법, 현재 일을 분석하는 일이다.
 - 목적에 도달하였는가...?! (비판적 사고: 문제 확인 분석, 원인, 전략에 대한 과정)
 -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이 경험되었는가...?! (프로그램의 장, 단점, 가치분류)
 - 학생 개인에게는 무엇이 경험되었는가...?! (개인의 변화)
 - 프로그램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가...?! (성취되는 과정)
 - 변형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7. 좋은 수련회를 위한 전략

- 1) 꼭 수련회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인가?
 - 수련회는 우리 청소년부의 돌파구인가? 블랙홀인가?
 - 계속교육과정(예배와 양육)과 집중교육과정(수련회)의 균형이 필요하다.
 -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하고 세심하게 기획하고 만들어야 한다.
- 2) 수련회의 기존의 형식과 구조(paradigm)를 바꾸라!
 - 언제나 뻔한 수련회? 우리는 다 안다. 재미란 것은 없다.
 - 기대감을 갖게 하라! (현재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 특화(特化)된 수련회를 기획해야 한다.
 - 예) 각 교회 상황에 따라 영성훈련중심의 큐티(QT)훈련 수련회, 기도 수련회, 찬양 수련회, 말씀중심의 전도(사도행전) 수련회, 출애굽기 수련회, 창세기 수련회, 성경통독 수련회, 필요한 주제에 따라 비전 공동체 세우기 수련회, 성령 수련회, 학습코칭 수련회, 등
 - 시대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3) 혼자보다는 둘, 셋도 좋다!
 - 연합 수련회의 강점과 장점을 활용하라!
 - 소규모 교회가 힘겹게 진행하는 수련회보다 영성이 동일한 교회의 연합이나 지방 차원의 수련회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4) 여름수련회의 계획과 준비를 위해 고려하고 점검할 것!

- 우리 교회의 영적 상황, 기획 능력, 교사자원등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전략에 맞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획과 더불어 수려회 이후 후속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라!

“왜”라는 목적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 확실하면, 내용과 방법은 올바르게 이끌어진다.

우리는 왜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II. 수련회의 다양한 형태

■ ‘21세기와 청년목회’에서 김치성 목사

1. 수양중심의 수련회- 휴식과 안식을 목적으로. 새벽기도회, 저녁집회, 낮 성경공부. 여가 프로그램, 영화, 연극공연, 주변문화유적지, 자유 시간.
2. 인간관계 중심의 수련회- 친밀감과 교제를 목적으로, 수련회를 통해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인간관계훈련, 공동체훈련
3. 순례형식의 수련회- 장소이동으로 좀 더 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수련회. 수목원, 유적지, 전도형식의 순례여행, 산행수련회, 국토순례,
4. 성경암송중심의 수련회- 오직 성경암송만을 주목적으로,
5. 성경공부중심의 수련회- 성경암송, 개론적 성경경부, 귀납법적, 연역적 성경공부
6. 부흥회중심의 수련회- 영적인 은혜와 갱신을 목적으로, 큐티, 성경공부, 찬양중심
7. 농어촌봉사형의 수련회- 성경학교지원, 농활중심의 봉사,
8. 선교 및 전도여행형의 수련회-단기선교, 비전 트립,

■ 일반적인 분류

1. 전통적인 수련회(기도, 은혜중심의 수련회)
2. 봉사활동 중심의 수련회: 감리회청년전국연합회의 청년체험수련회, 가나안 농군학교,

예수원.

3. 찬양 중심의 수련회
4. 비전트립 중심의 수련회(단기선교)
5. 기독교유적답사중심의 수련회
6. 감리교회계통대학 및 명문대학 견학 수련회
7. 문화체험중심의 수련회 : 박물관, 고궁, 영화, 연극 등
8. 순례 및 산행, 환경중심의 수련회
9. 독서캠프 및 영어교육캠프
10. 공동체훈련중심의 수련회
11. 내적치유중심의 수련회
12. 자기정체성탐구 수련회: 웨슬리영성수련회, MBTB,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분석 수련회, 침묵수련회,
13. 리더십중심의 수련회.
14. 장애 이해 및 체험 수련회: 은평 천사원,

III. 청소년 수련회 십계명(Problem & Solution)

Problem 1

학원에, 봉사 점수를 위한 활동에, 가족 여행에, 방학 때가 더 바쁜 아이들... 그래서 학생들의 수련회 참여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ㅠㅠ) 많이 참여하여 수련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Solution - 입시준비가 대세(大勢)인 방학 때, 학원 수강에 맞서 2박3일 혹은 3박4일의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우선은 수련회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잘 준비된 홍보(동영상, 포스터, 문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홍보에 따라 참여가 달라집니다. 홍보에는 패러디가 '최고' 입니다. ^^ 그래도 학생들의 참여가 50~60%이상 되지 않으면 수련회를 꼭 외부에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수련회의 목적이 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성 함양’ 이라면 되도록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교회에서 잘 준비된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roblem 2

우리 교회는 학생들 숫자가 적어서 무엇을 해도 힘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소규모 교회들이 수련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Solution - 인원이 적다는 것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인원이 적은 공동체는 투어(Tour)형태의 수련회에 훨씬 강점이 있습니다. 혹시 지방에서 실시하는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지방 수련회가 없으면 사역자들끼리 협의하여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영성의 4~5교회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힘으로 진행하기 힘든 농어촌의 교회는 규모가 있는 도시청년부가 실시하는 국내선교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roblem 3

수련회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교사와 아이들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담 백 배~!)

Solution - 사회, 학교 교육의 훈련 프로그램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교회 수련회는 그동안 너무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으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참여했다가 ‘역시나’ 하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는 수련회에 가지 않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수련회를 하기 전에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목표설정이 필요합니다. (위의 강의안 참고) 그 다음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뻔한 수련회가 아니라 가끔은 수련회의 기존 형식과 구조를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특화(特化)된 수련회를 기획해야 합니다. 테마(Thema) 중심의 수련회가 좋습니다. 그 주제는 영적 성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려면 큐티(Q.T) 수련회, 찬양 수련회, 전도(사도행전)수련회, 기도, 성령 수련회 등으로 기획하거나, 성경말씀

을 중심으로 한 출애굽수련회, 마가복음 수련회, 창세기, 여호수아, 빌립보서 수련회 등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서는 비전세우기 수련회, 사명 수련회, 꿈 수련회 등을 진행하며, 공동체성 함양과 교제가 필요하다면 한 장소가 아닌 계속 이동하며 함께하는 국내성지순례, 국토순례, 지역문화와 역사알기 수련회 등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 봉사나 사회봉사 중심 수련회도 의미가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수련회를 기획할 때 이름에 걸맞는 수련회가 되도록 통합된 조직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어떤 테마로 기획하든지 영성훈련과 재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Problem 4

해마다 장소를 구하기 위해 답사를 다니고 섭외하는 것에 너무 힘을 쏟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장소를 섭외하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Solution - 감리교회 중 수련회를 실시하는 교회를 약3,000여개로 볼 때, 해마다 수련회 장소로 3,000여 장소가 사용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중한 장소들을 공유하는 네트워크(Network)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입니다.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수련전도사 과정을 밟으며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이 각 교회가 다녀왔던 장소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올리는 카페나 블로그가 있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지방의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끼리 장소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일들이나, 교육국 차세대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교회에서 실시했던 수련회 장소를 간단한 소개(사진과 인원, 장단점, 비용)와 함께 지정된 게시판에 올려 장소를 공유하여 시간과 물적 자원의 소모를 줄이도록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먼저 자기 교회의 장소를 성실히 올린 교회에게 다른 장소도 열람하며 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면 좋겠지요. 해마다 각 교회가 답사에 쏟는 많은 비용도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있을 것입니다. ^^

Problem 5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영성 중심과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 두 가지 수련회의 방향성을 놓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Solution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영적 수준과 상황에 대한 사역자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안된다'는 부담감(?)에서 오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무리한(?) 요구는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학생들에게 반(反)작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담당 목회자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영적, 육적 고민들을 잘 진단하여 그 필요에 응답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성과 재미, 둘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한 단계 성숙하도록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일방적인 수련회 보다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기획이 큰 은혜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Problem 6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주시길 청소년들을 위한 강사 목사님들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메시지와 어려운 교회 사정을 고려하여 저렴(?)하게 섬겨주시길 강사님들 어디 없나요?

Solution -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문제점과 영적 필요는 사역자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점입니다. 가급적이면 담당 목회자가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외부강사를 원하신다면 - 감리교 안에 전문적인 청소년 말씀사역자가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수가 참 적습니다 - 교육국 차세대교육정책부에 문의하시면 복음적으로 집회를 잘 이끄시는 보증된 목사님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추천 인명록을 참고하여 섭외하시고, 수련회 장소와 마찬가지로 각 교회 수련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던 강사들이 있으면 강력 추천해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겠지요. ^^

Problem 7

원론(原論)적인 이야기 보다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실제적으로 수련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일목요연한 매뉴얼을 원합니다.

Solution - 각 교회마다 수련회는 해마다 실시하는데 준비는 언제나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마다 3,000여개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여름 한 철 잠깐 사용되어지고 수련회가 끝나면 사장(死藏)되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련회 전후(前後) 그 모든 과정을 자료화(D/B)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에 10년 정도의 자료가 쌓이면 길이 보입니다.

수련회의 매뉴얼은 각 교회에서 정리한 자료(용두동교회의 경우 지난 8년간의 여름행사 자료집이 구비되어 있음)나 각 신학대학 커리큘럼 자료실이나 각종 기독교교육잡지(예: 신앙과 교육 등)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담당 사역자간에 나눔과 교제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더불어 주어진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각 교회의 중고등부에 맞게 걸러내어 적용하는 작업은 사역자의 몫입니다. 힘들어도 창조적인 사역이 자신의 미래와 공동체와 자신의 리더십을 위해 좋습니다.

Problem 8

재정적인 문제와 헌신하여 봉사해 줄 교사들의 숫자가 늘 부족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Solution - 중고등부 담당 교사들이 휴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수련회를 미리 기획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은사가 있는 청년과 청장년을 미리 섭외하여 활용하면 좋겠지요. 특별히 중고등부 출신의 1~3년차 되는 청년들은 가장 시간적으로나 열정 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업무 분담과 동기 부여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규모가 적을 경우는 연합 수련회를 하면 각 사역자들이 은사에 따라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경우 부장님들을 통해 자녀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여선교회, 남선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기꺼이 헌신해 주실 겁니다. ^^

Problem 9

수련회 때는 은혜를 받지만 교회로 돌아와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Solution - 수련회 은혜 그 이후, 후속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수련회 기획에 후속 프로그램 까지 들어가야 좋은 계획입니다. 수련회 후 2~3주 지난 후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을 중심으로 한 찬양집회와 더불어 1일 부흥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련회 때 프로그램을 통해 결단하고 작정한 것들이 수련회 이후 잘 실천되어지고 있는지 담당 분반교사가 세밀하게 점검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분반별, 부서별로 편안한 1박2일이나 하루저녁 M.T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수련회 때의 사진, 영상을 잘 정리하여 보여줌으로 결단에 따른 실천을 점검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련회이후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과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 옵니다. 사역자는 이 기본적인 부분이 점검되고 움직이도록 교사를 독려하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roblem 10

수련회 성경공부 교재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교재 추천바랍니다.

Solution - 일단은 교육국에서 발행하는 수련회용 공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수련회의 주제에 따라 시중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교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황에 맞게 편집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재(教材)에 빠져 교제(交際)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소그룹은 관계를 잘 맺는 일이 우선입니다. 교사들이 교재를 시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교재는 일방적인 강의, 가르침보다 내용은 단순 하면서도 나눔(sharing)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IV. 청소년수련회 설교

1. 뷔페가 아니라 전문식당에서 먹고 싶어요.
2.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말씀해 주세요.
3. 작년과 다르게, 매년 똑같은 말씀은 싫어요.
4.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요.
5. 말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라.
6. 주연배우를 주목하게 하라.
7. 수련회 전체 프로그램과 연관된 일관성 있는 주제로 설교하라.
8.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영적 체험과 영적 성숙으로 초점이 모아지게 하라.
9. 분유가 아니라, 모유를 먹고 싶어요.

청소년 전도의 이론과 실제

김성기 목사 | 만수중앙교회

SISTER전도를 통한 대림교회 부흥이야기

■ SISTER 전도의 전도법의 역사

SISTER 전도법은 2000년 은혜장로교회에서 놀이체육으로 3개월 만에 어린이 100명을 전도한 김성기 목사의 부서별 3년씩 부흥연구의 비전을 바탕으로 2002년 대림교회 아동부 배가 부흥, 2005년 중고등부 배가부흥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되었다. 2007년 부서별 3배의 출석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지속적 부흥이 있게 하는 실제적인 전도법이다. 2009년부터 청년부 부흥에도 적용해 오고 있다.

■ SISTER 전도란?

Sister 전도란,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듯, 누나는 동생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며 사랑으로 돌본다는 대명제하에 우리의 존재이유를 예수님처럼 전도에 두고 기도의 기초 위에 기독교 계몽운동이라는 방법론과 인재양성, 역동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영혼구원-생명사랑-생명돌봄 운동입니다.

동생(전도대상자)을 향한 누나(교사, 교육담당 교역자, 교회학교 학생)가 해야 할 일

1. 놀아준다(sports 전도)

- 유치부 : 달리기, 높이뛰기, 줄넘기, 소꿉놀이, 태권도 발차기, 놀이용품으로 함께 놀아주기

- 아동부 : 달리기, 높이뛰기, 줄넘기, 축구, 피구, 태권도 발차기, 꼬마야 꼬마야, 배드민턴
- 중고등부 : 축구, 농구, 야구, 발야구, 피구, 방송댄스, 베드민턴, 게임방, 노래방
- 청년부 : 축구, 농구, 야구, 베드민턴, 게임방, 노래방

2002년 놀이 체육으로 3개월 만에 은혜교회에서 100명 전도

2003년 대림중학교 20명 한번에 전도

2004년 중고생 10명 농구전도

감리교 어린이, 청소년 전국 축구대회 개최로 전국적으로 수백 개 교회 축구를 통한 부흥

2008년 대림 유치부 축구단 조직

대림교회 어린이 축구단이 발족되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조직 부흥
대림교회 농구 - 청소년 농구대회를 통한 성장

〈청소년 스포츠 무한도전〉

구 분	항 목	시 간	내 용
사전 준비	사전 준비	10:00~13:30	행사장 세팅 및 진행요원 All stand-by 참가자 도착 및 점심식사
공식 행사	개회예배	13:30~13:40	참가자 입장 및 무대 앞 정렬 개회선언 / 기도 / 찬송 / 말씀 / 대표선수 선서 공지사항 전달 및 사회자 소개
프로그램	몸풀기 체조	13:40~13:50	준비체조
	대림기네스 대회	13:50~15:00	줄넘기 대회(개인 1단 뛰기 남녀, 개인 2단 뛰기 남녀, 단체줄넘기), 훌라후프 돌리기, 고리던지기, 투호, 2인 3각 달리기, 400미터 달리기 남녀 릴레이(청백 전)
	농 구	14:00~16:30	3on3 경기 / 중등부, 고등부 사전 접수 진행
	축 구	15:00~16:30	중등부경기 청백전/고등부경기 청백전
	피 구	15:40~16:00	여자부 경기 / 청백전으로 진행(3전 2 선승제/1set 당 5분) 축구경기 하프타임시 진행
폐식 행사	시상식	16:30~16:40	종합시상식, 폐회사
	정 리	16:40~	그린타임

박홍세 강사(대림교회교사) 제공

2. 먹을 것을 준다. (invitation)

매월 1회 총출석 · 친구초청예배

음식 : 피자(1인당 1000원 한쪽)- 학년별 모임

이벤트 > 어린이 : 매직공연, 인형극, 이동식 입체영화, 레크레이션, 선물뽑기, 빼어로
마임

중고등부, 청년부 : 특강(간중)- 특별한 사람초대, 레크레이션, 선물뽑기, 학
교 동아리 초청

초청장을 부지런히 돌린다. 음악, 연극예배, 영상예배등 다양한 예배구성.

담당 교역자, 교사, 학생 모두 한 주 기도하며 줄다리기 하듯이 지역에 사는 장기 결석
자, 전도대상자를 초대한다. 출석률이 높게 나타난다.

5년간 피자를 먹고 있다. 잔치를 잘 준비하자.

3. 학교에 간다. (school- 학교 방문 전도)

· 유치부 : 유치원 프로그램 지원(인형극, 동화, 체육, 매직 등)

· 아동부 : 등하교 학교앞 전도, 점심시간 간식 나누기, 소풍, 체육대회 방문, 입학 졸업식

· 중고등부 : 등하교 학교앞 전도, 점심시간 간식 나누기, 기도모임, 봉사점수, 축제 방문

· 청년부 : 대학교 방문 동아리 조직, 직장 방문 식사하기

부서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학교 방문전도가 이루어지게 한다.

한주에 한번정도 점심시간에 교회 학생들이 다른 반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껌, 마이쮸, 초콜릿, 레모나, 비타민 C 등을 준다. 격려한다. (원경순, 김혜령 교사)

학교앞 전도는 학생관리의 좋은 방법이다. (새신자, 장기결석자)

신앙엽서를 준다. 성경구절 카드를 준다.

1시간에 수천명을 만난다- 주님과 경이로움을 맛보라!

대림교회 : 목금토 학교앞 전도. 5년 역사속에 만나는 학생수가 엄청 늘어났고 고3학생
까지 세력이 크게 형성되었다.

일주일에 두번 이상 방문하면 효과가 크다. 교사들도 친구초청예배 전 토요일에 참여하
는 게 좋다.

4. 전화를 한다. (telephone- 전화심방)

생일 축하전화, 토요 주일 예배 출석 권면 전화, 평일 안부전화, 부모와 상담전화, 문자 보내기, 새신자 전화, 학생이 학생에게 전화하기

* 전화시 따스한 말과 칭찬을 해 주도록 합니다.

* 김원중 선생 전화, 가정심방으로 반 부흥(교사수첩에 학교, 특이사항, 가정사항 세밀이 기록)

5. 가르쳐 준다. (education- 학습전도)

인재양성, 영어교실, 음악교실(드럼, 기타, 하모니카, 노래, 플룻 등)

매직교실, 스포츠 교실(인라인스케이트, 축구, 농구, 댄스 등), 논술, 수학교실, 과학교실, 비전교실(정치, 경제, 선교, 문화등), 시험 2주전 분반공부 후 모르는 문제 풀기(봉사교사 확보), 우수한 학생들이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건태 교장선생님 학습교실, 임영식 권사님의 토요영어교실로 전도효과 나타남, 은혜교회 학습교실로 전교1등 학생배출. 어린이, 청소년 쉼터를 통한 선교,

이두철 권사 대림유소년 축구교실로 전도효과 나타남.

제자교육, 방학말씀특강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꾼 양성

6. 잘했다고 칭찬한다. (reward- 전도상 시상)

· 2002년 대림교회 이기진 교감께서 전도왕 시상품으로 컴퓨터 기증으로 유형환 6학년 어린이가 인천에서 서울 대림교회로 20명 전도, 100명 어린이 1명이상 전도로 280명 등록

· 2003, 2004년 김하영 어린이 12명씩 전도 자전거 시상

· 2005년 박종찬 6학년 어린이 20명 전도 MP3 시상

· 2006년 안승규 중학생 16명 전도 문화상품권 10만원권 시상

전반기, 하반기 시상도 좋지만, 4월, 10월, 12월 부서에 맞게 시상하면 효과가 더욱 나타남.

전도자 및 전도된 학생 명단 일람표 작성 홍보

전도의 중요성을 설교와 분반공부 시간에 강조한다.

전도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준다.

성적향상 상, 재능향상 상

구체적인 자료 : www.sim.or.kr (감리교교회학교 부흥운동본부, 스포츠선교 연구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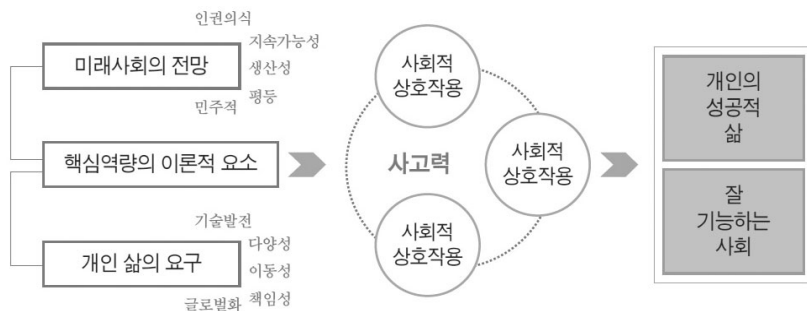
TEL : 02-833-9332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목회의 패러다임

이용환 사무국장 | 사아름다운청소년들

I. 사회의 변화

OECD는 DeSeCo(핵심역량을 삶의 개념과 연계한) 연구 프로젝트를 1997년에서 2003년까지 7년간 진행하였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독일, 미국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OECD는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새 기술들(technology), 다양성(diversity)이 증가하는 사회, 그리고 전 세계의 지구촌화(globalization)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삶(mobility)에 적응해야 하며, 증가하는 개인의 책임(responsibility)도 감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기초로 개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지적도구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및 이 3가지 핵심역량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사고력'을 제안하였다.



출처: DeSeCo (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결과적으로 미주 및 유럽 각국에서는 어린 시기부터 학교안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창의성과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공동체적인 인성을 키워나가도록 청소년교육의 다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세계적인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미래형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기로 발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14호) 하였다.

II. 종교계의 변화

■ 불교

- ‘청소년 창의적 불교 체험’ 워크북 나와(2012.03.14 BBS불교방송)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2011.03.10. 법보신문)
- 2012년 6월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을 창단(연합뉴스 2012-06-11)

■ 가톨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가톨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양해각서 체결(2011.05.05 뉴스와이어)
- 템플스테이 말고 천주교 피정도 있어요(뉴스시 2011-06-30)

III.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사)아름다운청소년들

- 2006년 국가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내 최초 제3호 인증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 일시 : 2009년 3월 20일 • 장소 : 국회 • 포상 : 동장 90명중 32명 배출 • <u>우수 지도자 부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수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 일시 : 2009년 12월 18일 • 장소 : 국회 • 포상 : 동장 11명, 은장 :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 일시 : 2010년 4월 23일 • 장소 : 국회 • 포상 : 동장 16명, 은장 : 2명 • <u>우수 청소년 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 일시 : 2010년 11월 30일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포상 : 동장 12명, 은장 : 2명 • <u>우수 청소년 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u> <u>우수 지도자 부문</u> <u>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수상</u> <u>우수 기관 부문</u> <u>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수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 일시 : 2011년 6월 10일 • 장소 : 국회 • 포상 : 동장 10명, 은장 :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 일시 : 2011년 12월 08일 • 장소 : 국회 • 포상 : 동장 3명, 금장 : 1명 • <u>우수 사진공모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화천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 개발 업무협약 - 2009년 서울시 436동자치회관 평가 신당5동 최우수동 선정 - 2009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협회지 대한민국 대표사례 선정 - 2010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제공기관 담당자교육 탐험활동 대표사례 선정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창의적체험활동 대국민설명회 대표사례선정 - 2010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창의적체험활동 아카데미 대표5사례선정 - 2011년 국내 최초 금장 합숙훈련 시행(싱가포르 국제교류 프로그램) - 2011년 케냐 금장 총회 한국대표 파견(예수마음교회 강한솔양) - 2011년 미국/호주/영국 3개국 초청 국제세미나 금장 대상자 강한솔 사례발표 	

IV.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교회는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교계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 도입 추진

세계적 자기 성장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품성 개발
스포츠·봉사활동·기능습득·개척활동 등 영역 다양

교계가 세계적인 자기 성장 프로그램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International Award For Young People·청소년포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제 에디버리포상제’로도 알려진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교육과 품성 개발뿐만 아니라 교회 본연의 임무인 선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종교계로서는 처음으로, 교계 차원에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사역의으로 삼고(公器)되기를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교대한국교회 교육국은 18일 서울 태평로 김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청소년포상제 국내 도입을 위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김리회 신혜교의 3곳(만나교회 예수마음교회 의정부제일교회)을 청소년포상제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한다.

어릴 교회는 이날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포상제 시범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포상제가 도입되면 김리회 교육국은 교회 내에 파견된 포상감독관을 교육·지원하며, 만어청소년진흥센터에 최종적인 포상 승인을 요청하는 업무를 맡는다.

예장통합총회 교육자원부도 오는 9월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청소년포상제 도입을 정식 결의할 계획이다. 통합총회 김지성 총무는 “청소년포상제는 청소년들의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교회교육을 활성화하고 교회 교육의 새

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이 참여 가능한 포상제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와 봉사활동, 기능습득, 개척활동 등 다양한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매주 1시간 이상씩 일정 기간 이상의 활동을 펼쳐야 상을 받을 수 있다. 활동 기간에 따라 금장 은장 동장 등으로 포상이 달라진다.

박재찬 기자 jee@kmb.co.kr

Key Word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에디버리포상제의 한국식 공식 명칭으로 14~25세 젊은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정 기간 봉사·탐험·자기개발·신체단련 등 4가지 영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면 상을 주는 제도다.

196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지난해 말 현재 120여개국에서 매년 60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특수목적고 등 13곳이 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소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14~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봉사, 신체단련, 자기개발, 탐험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5개국에서 운영 되고 있는 국제적인으로 인정된 자기성장 활동 목표 성취에 대한 포상제도

■ 전 세계에서 인정합니다!

- 1956년 영국에서 필립 공(에딘버러 공작, 엘리자베스 2세 부군)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2011년 135개국에서 실시-현재 61개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실시(국가 포상 권위)
- 세계 100대 대학으로 선정된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멜버른 대학교 등에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사관고등학교, 국제중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공립)고등학교 등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리교회 청년·청소년부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진로(진학 및 취업) 모색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선교 및 교회학교를 활성화하고 교회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 각급 교회 및 기관, 계통학교(70개 중고대학교) 협의회와 군선교회 등 각 선교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포상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영국 금장 수상자 포상제에 대한 효과성 설문조사 결과

- 87%가 포상활동이 끝났어도 그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
- 61%가 포상활동이 끝났어도 계속 자원봉사자로 활동
- 93%가 취업과 진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64%가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을 받았음
- 83%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었음
- 85%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음
- 79%가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음
- 78%가 의사결정능력이 증진되었음

■ 제도특성

- 활동기록의 신뢰성 및 공정성으로 활용가치 높음
 - 포상심사 과정 단계화로 신뢰성 확보 : 포상활동담당자 → 포상담당관 → 포상심의관 → 포상감독관 → 포상위원회
 - 활동기록부 자체의 포트폴리오 화 : 뚜렷한 성취목표와 계획 그리고 실행 및 성취과정들의 기록과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기록되고 평가 됨
 - 온라인 기록 관리로 신뢰성 확보 및 활동 포트폴리오 제공 및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글로벌 리더 네트워크 형성
 - 140개국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의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세계 같은 연령대의 글로벌 청소년 리더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
 - 매년 국제교류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시도별로 외국 국가들과 매칭 순환 교류시켜 나갈 예정임

■ 제도 현황

- 기본이념 : ①비경쟁성 ②평등성 ③자발성 ④융통성 ⑤균형성 ⑥단계성
⑦성취지향성 ⑧지속성 ⑨과정 중시성 ⑩흥미

• 세계 포상제 시행국가(2011년)

지역	국가
유럽 · 지중해 · 아랍	45개국
아프리카	28개국
아시아태평양	30개국
아메리카	28개국
계	135개국



■ 제도 개요 및 포상 요건

• 참여 연령 및 포상 단계

- 참여 연령 : 만 14 ~ 만 24세
- 포상 단계 : 동장(6개월), 은장(6~12개월), 금장(12~18개월)
- 포상활동 영역 : 봉사, 신체단련, 자기개발, 탐험, 합숙(금장 단계)

• 포상활동영역

- 신체단련활동 : 신체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
- 봉사활동 : 타인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 자기개발활동 : 개인의 관심 분야를 배우고 익히는 활동
- 탐험활동 : 자연을 통해 도전정신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활동
- 합숙활동 : 새로운 사람들과 가치있는 목적을 공동으로 이루는 활동

구 분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3박 4일	4박 5일 · 금장 단계 한함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2박 3일	-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1박 2일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 포상 요건

- 포상단계 별 활동영역 모두를 정해진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고 각 활동 별 성취목표를 달성하면 국제적인 포상을 받게 됨
- 활동 영역별 최소 필요 시간 이상 지속적 활동하고 성취목표에 달성해야 각 단계별 포상 받음
- 탐험활동 및 합숙활동을 제외한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활동은 각각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야하고 7일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 신청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수상, 2010년-11년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 14세~25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며, 전 세계 135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성장 프로그램입니다.

※ 한국형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만 09세~14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연중
- 모집대상 : 교회, 기관, 시설, 학교, 단체, 군부대 등
- 주최 : 국제포상협회(IAA),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사무국
- 주관 : 교육국 사)아름다운청소년들 중앙운영기관
- 문의 : 교육국 사)아름다운청소년들 중앙운영기관

전화 : 02-399-3955, 팩스 : 02-399-4379

교육국 차세대교육부 : 02-399-4371 정현범

사)아름다운청소년들 : 02-399-3955, 010-7377-2520 이용환

이메일 : pureuny@hanmail.net

■ 기대효과

- 운영기관
 -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 승인
 - 국제적인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인정
 - 차세대 선교 및 교회학교를 활성화와 교회 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
(교회활동 비교과영역으로 인정-교육과학기술부 창의체험활동과 연계)
- 포상지도자
 - 140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담당관 수료증 제공
 - 전문교육 및 연수과정을 통하여 차세대 전문지도자로서의 전문성 획득
- 참가청소년
 - 국제포상협회 인증서, 여성가족부장관 인증서 제공
 - 참가활동기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정보시스템 보존
 - 진로(취업과 입시 등)와 관련하여 참가활동기록 포트폴리오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 2010년 5월24일)

청소년! 하나님나라 그루터기

은준관 총장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서론 : 2020, 어린이, 청소년 없는 교회

I. John Westerhoff 교수의 도전과 그 의미

A. Faith and Faithing 사이 I

1.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neither teaching, nor teachable)
2. 청소년, 교회학교의 실패는 오히려 'schooling' (학교식),
'instructional' (교수식, 교사중심) 패러다임 때문

B. Faith and Faithing 사이 II

1. '신앙'은 '형성' (formation) 되는 것
2. 공동체와 관계를 통하여-종교적사회화(religious socialization)
3. 특히, 신앙공동체를 통하여(예배, 배움, 행동)

C. 교훈 몇 가지

1. 교사의 헌신은 소중, 그러나 ‘교사중심의 교육’은 비인간화초래
2. ‘커리큘럼’ ‘프로그램’은 소중한 매개,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의 표현양식이어야

II. Westerhoff론의 비판적 수용

A. Westerhoff와 은준관목사의 관계

1. 만남
2. 주일학교, 교회학교, 주일교회학교의 신봉자
 - a. 1973-1975년-15 : 교회 교회학교 실험교육
 - b. 1968-1992년 : 교회학교론, 교사교육에 헌신
 - c. 2000년 : 교회학교 위기론 대두
 - d. Westerhoff론의 재해석 및 패러다임 전환

B. Westerhoff의 ‘교회학교폐기론’은 잘못된 발상

1. Westerhoff - 교회학교포기 - 대안모색
2. 은준관목사 - a. 교회학교를 신앙공동체로(paradigm shift)
 - b. ‘교회학교’, ‘교사중심’, ‘프로그램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세우기”로

III. 왜 어린이. 청소년교회인가? (신학적 전제)

(1971-1972, 1974-1975, 2012년 진행 중)

A. 어린이, 청소년은 ‘피교육자’ ‘학생’ 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Laos tou Theou)이다.

1. 신학적 의미

2. 교육학적 의미

B. 어린이, 청소년교회는 교회의 한 기관 (organization)이 아니다.
교회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 – 신앙생명체)이다.

1. 신학적 의미

2. 교육학적 의미

C. 어린이, 청소년교회의 3중 구조 – 신앙과 공동체의 표현양식

1. 예배(Leitourgia)

2. 교실교육(Didache)

3. 섬김(Diakonia)

D. 어린이, 청소년교회 교사

1.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2. Co-designer, mid-wife, Orchestra conductor

IV. 실험교육에서 얻는 교훈 몇 가지

- A. 어린이. 청소년을 하나님 앞에 신앙, 배움, 섬김의 주체로 세우는 패러다임전환
- B. 담임목사의 교육목회전환과 교육공동체 창조-educational ecology
- C. 교육목사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세우기
- D. 교사의 영성과 전문성의 결합 - (선정, 예비교육, 계속교육)
- E. 과감한 청소년교회 실험 및 평가

결론

〈참고자료〉

1. John Westerhoff III., Values for Tomorrow's Children, Pilgrim 1971
2. _____,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Seabury, 1976
3. 은준관, “한국기독교교육 100년” -역사적 유산과 위기-
4. 은준관, “왜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여야 하는가?” -미래교회교육의 패러다임-

교회의 핵심가치

안민 교수 | 고신대학교 음악대학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한국기독교교육 100년”

— 역사적 유산과 위기 —

은준관 총장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일본의 학정이 끝나가던 1944년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시골 한 작은교회 주일학교와의 첫 만남은 제 삶의 메타노이아(metanoia)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박한 메타노이아의 경험은 2010년 오늘까지 저의 삶을 이어준 계시의 순간이었으며, 그 결과 저는 66년을 예수그리스도신앙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한국교회 앞에 큰 빛을 지고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2020 어린이없는 교회”의 도래가 예고된 상징적 경고 앞에 저는 한없는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예고는 교회학교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존폐까지도 위협하는 강력한 message이기 때문입니다.

제1강의 주제는 “한국기독교교육 100년, 역사적 유산과 위기”입니다. 저는 66년 전 경험했던 소박한 메타노이아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은 황해도 웅

진군 서면 동오리였으며, 5일마다 장이 열리는 “장터”였습니다. 장날이면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들끓다가 오후 5시 폐장과 함께 동네는 한순간 “술”, “기생”, “싸움”으로 지옥이 되곤 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다소 부유했으나 온갖 미신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의 집이었습니다.

동네 뒤 언덕에는 작은 초가집 예배당이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일본식 교육에 찌들고, 샤머니즘에 매몰되었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에게 이 작은 예배당은 한낱 이방지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944년 어느 날 나는 내 짝, 그 작은교회 목사님의 둘째 아들의 강력한, 그러나 역겨울 정도의 권유에 끌려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간 처음 순간 나는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누군가의 임재를 느끼는 충격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주일학교의 예배, 성경말씀, 이야기식 설교, 분반, 찬송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장마당 문화는 깨지고,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처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하나의 역을 맡아 드라마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삶의 주역’이 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45년 민족해방과 함께 그 교회는 갑자기 그 동네와 지역의 정신적 중심으로 우뚝 서고, 목사님은 지역 지도자가 되면서 기독교 복음은 타락했던 그 동네를 급속도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메타노이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작은 교회에는 목사님 한 분이 꿈꾸었던 미래가 교육적 비전으로 표출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함께 만들어낸 무형의 “교육의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년사경회와 부흥회 그리고 주일학교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Life - Transforming Event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숨 고르기도 전에 그 시골 목사님은 “중학교” (동광중학교, 지금 강화에 피난학교)를 설립하시고, 북한으로부터 피난 온 교사들을 붙잡고 최고의 공교육을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1회 졸업 제1호입니다. 이 작은 시골 학교에서 목회자가 10여명, 교사, 실업가들이 다수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변화를 지켜보던 장마당 술집, shaman 부모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메타노이아는 온 동네로 퍼져 나갔습니다. 가정에서는 술이 끊어지고 싸움이 그치는 공동적 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삶과 신앙 밑바닥에 흘러온 제 개인의 신앙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소박한 도식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한 분의 교육적 비전과 헌신은 그 한 교회를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교육공동체로 만들고 있었으며, 그것은 말없는 그러나 강력한 “교육시스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교육 시스템은 기독교 학교 건립이라는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그 지역의 수많은 부모와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유기적 연계성이라는 하나의 생명의 강물이 바로 우리가 오늘 찾고 있는 기독교교육의 도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 소박한 경험과 사례는 두 번의 걸친 제 강연 속에 흐르는 내면의 구조임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00년 전에 시작된 한국기독교교육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①“교회공동체” - ② “교회의 교육 공동체화” - ③ “교육의 시스템” - ④ “지역의 메타노이아” 라는 하나의 유기적 연계성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기독교교육100년의 의미를 조명하는데 중요한 해석의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100년 전에 시작한 한국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사회교육에서 출발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했던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일어났던 강렬한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욕구가 창조해 낸 하나의 민족적 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에서 보면 그 당시 기독교사회교육의 impact는 교육행위를 넘어 민족의 문화혁명과 정치혁명까지를 주도했던 transforming event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육 100년을 시대별로 구분하는 학문적 시도는 학자들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4기로 나누는 공통된 해석의 틀을 따라 역사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I. 한국기독교교육 100년의 제1기는 1885년부터 1919년 사이를 계수합니다.

‘진통기’ (문동환), ‘민족교육’ (오인택, 장종철), ‘선교사이식’ (손원영)으로 부르는 제1기를 저는 ‘문화혁명기’로 부르려고 합니다.

1876년 한일 수호조약을 시작으로 교묘한 술법을 가지고 이 땅을 침략하고 들어온 일본 제국 주위의 횡포는 역으로 젊은 지도층의 나라 구하기, 민족주의의 불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밀린 러시아나 중국이 구한말의 한국을 도울 수 없게 되자,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선교사들을 통한 미국을 견제세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선교는 두 가지 channel로 한국 땅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1883년 Robert Maclay가 고종 황제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의 운허를 받은 것을 계기로, 1885년 Allen이 “광혜원”을 세우고, 여성을 위한 병원, 정동병원이 같은 해 시작됨으로(김폴린, 한국기독교교육의 역사, 1992, p.19), 한국기독교교육의 첫 번째 channel은 ‘의료선교’에서 출발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의료선교가 갖는 기독교 교육적 의미는 의술전수와 함께 동반된 양반귀족의 계급타파 그리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평등주의를 심어놓은 데서 온 메타노이아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독교교육의 channel은 ‘배재학당’을 시작으로 ‘이화학당’, ‘경신학당’, ‘정신학당’으로 이어진 기독교 학교를 통한 새 인간 교육이었습니다. 밑으로는 민족교육과 신앙교육이, 그러나 밖으로는 새 인간 교육을 표방한 기독교학교는 민족의, 더욱이 대중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기독교학교운동은 급속도로 전국에 퍼져 나갔습니다. 장로교학교 501, 감리교학교 158, Catholic계 학교 46, 성공회학교 4의 설립으로 확산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07년 7월 고종황제의 강제퇴위는 일본의 침략을 합법화로 이어가고, 1910년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의 역사는 이 땅의 주권상실 뿐 아니라 5천 년 역사의 맥을 끊어놓는 민족적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탐욕의 끈을 놓지 않고 우민화 정책, 동화정책, 일본어

보급, 사립학교령, 개정사립학교규칙을 내놓으면서 기독교학교 탄압과 한국의 "얼" 말살운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학교는 끊어져 나가는 민족의 얼의 단절 그 한복판에서 “성경” 교육과 “민족” 교육을 절묘하게 결합시키면서 문화혁명의 발판을 만들어갔습니다. 한국기독교교육 100년의 가장 큰 물줄기는 기독교 학교들이 만들어낸 인간혁명, 문화혁명, 심지어 정치혁명의 흐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학교는 한국기독교교육의 창시자였으며, 오늘 위기에 처한 기독교학교는 역사적 유산에서 재평가되고,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의료선교”와 “기독교학교”가 강렬한 문화혁명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사실은 후발주자로 편승한 기독교교육의 세 번째 흐름이 바로 “주일학교”(Sunday School) 운동이었습니다. 주일학교는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이식한 교육이었으며, 더욱이 교회가 표출한 교육도 아니었기에 주일학교를 교회교육으로 범주화해온 모든 학문적 시도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주일학교를 교회교육으로 혼돈해 온 것이 한국기독교교육을 혼란에 빠뜨린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888년 Scranton 부인이 시작한 “단칸방 주일학교”, 1890년 소래교회 사랑방교육(민경배, 문동환)을 주일학교의 처음 시작이라고 본다면, 이 둘은 처음부터 교회가 주일학교를 창출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교육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일학교가 교회교육의 공백을 대신 메우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1780년 영국교회가 외면한 기독교교육적 책임, 거기서 생겨난 영적 공백의 자리를 한 뜻있는 평신도, Robert Raikes에 의해 시작된 “주일학교”가 기독교교육의 맥을 이어간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이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처음 유년주일학교는 다시 1897년 W. Arthor Noble 목사 내외에 의해 설립된 “여성성

정학원”(김폴린,183)으로 이어졌으며, 결정적인 것은 1909년 G. H. Jones가 정동교회 안에 “유년주일학교”를 설립한 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경회”와 “성경학원” 그리고 “장년주일학교”라는 또 다른 가지들이 일어나 기독교교육형성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1905년 소위 Federal Council of Missions 라는 “선교 연합 공의회”가 결성되면서 그 안에 유년주일학교가 공식적인 위원회로 공인되면서 주일학교운동은 한국기독교교육의 세 번째 흐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운동은 장로회, 감리교의 연합운동의 “場”이 되었으며, 선교사와 한국인 지도자, 현순, 윤치호, 한석원(제가 정동교회 담임 목사때 정동교회 출석), 남궁혁, 홍병선 등이 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주일학교는 전국 구석구석에 강력한 신앙운동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1907년 전국 주일학교는 613개 학생 45,918명이었으나 1913년 주일학교는 23,92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강력한 기독교교육운동으로 등장한 주일학교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시스템 사이의 절묘한 긴장과 연합은 또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불행히도 그 시스템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913년 서울 경복궁에서 열렸던 전국주일학교대회에 14,700여 명이 참여하는 놀라운 신앙적, 교육적 열기 뒤에는 “세계주일학교협회”라는 당시 막강했던 세계조직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계주일학교협회”와 한국기독교 연합운동의 기수였던 “선교연합공의회”의 뒷받침을 받은 주일학교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공허 속에서 한국인을 서서히 떠받쳐주는 정신적-치유적 공동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교육을 하나의 “운동”(흐름)으로 보는 Mary Elizabeth Moore 박사의 해석과 그것을 떠받쳐주는 support system으로서의 '주일학교위원회'의 ecumenical spirit 과 조직력, 그리고 ecumenical leadership이 만들어낸 창조적인 결합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기독교 교육은 방향없는 운동이 되는지, 아니면 운동 그 자체가 소멸되고 조직만 남는 비운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도 교회는 교육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실시된 어린이 신앙운동이었을 뿐, 그것은 교회교육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의료선교”, “기독교학교”, “주일학교”가 한국을 문화혁명으로 이끌어가고 있을 때, 한국 초기기독교 교육은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합세함으로 더욱 강력한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청년운동의 발화였습니다. 1897년 정동교회에서 처음 조직된 “엠펙 청년회”(Epworth League)은 감리교의 청년운동의 시작이었고, 1901년 새문안교회에서 시작된 청년 면려회는 장로교청년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청년운동은 사회변혁의 기수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 안의 신앙운동으로 머무는 한계 때문에 그 impact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교육운동의 한 강력한 “축”으로 가세한 흐름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 일어난 한국기독교청년운동이었습니다. 비록 자생적 신앙운동은 아니었지만, 한국기독교청년운동은 세계 YMCA운동과 연계되면서 강력한 신앙 및 사회변혁운동으로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시골을 떠나 도시로 모여든 청소년들이 1844년 스스로 결성한 영국 YMCA가 그 시작이었다면, 1855년 8월 파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청년”을 주제로 선포한 파리 선언문과 함께 닳을 올린 세계YMCA연맹은 19세기의 세계 젊은이들을 일깨운 기독교청년운동의 아방가르드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 YMCA가 한국의 선교사와 한국인 젊은이들과 접촉되면서 한국 기독교청년운동은 그 역사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1903년 10월 28일 정동 Union Club에서 “황성기독교청년회”가 결성되던 역사적인 자리에는 민영환, 최병헌(정동교회목사)외의 기독교청년리더들, Allen 과 Underwood, 심지어는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910년 Edinburgh Conference를 소집했던 에큐메니칼운동의 세계지도자, John Mott박사가 한국 YMCA 창립과 세계 YMCA를 연계시켜준 주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Mott박사는 한국기독교청년운동과 후일 한국교회연합운동의 초석을 놓은 숨은 공로자였습니다.

한국기독교청년운동의 성공 뒤에는 이처럼 강력한 support system이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10년 10월 이승만이 귀국한 후 YMCA

학생부 간사가 되면서 전국 120여 곳에 학생 YMCA를 조직하는 기업을 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나라와 기독청년"이라는 신앙고백에서 시작한 한국기독청년운동, YMCA는 YWCA와 함께 강력한 민족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폭력, 무저항, 민주주의, 국민의 실력배양을 목표로 삼고 성경공부와, 기도회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요강좌, 강연회, 카운슬링, 노동야학, 목공, 철공, 사진, 인쇄같은 인간교육과 기술교육을 통해 한국 젊은이들의 내일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한국기독교교육 운동을 이끌어간 하나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기독교교육 제1기의 특징은 "기독교사회교육"이었으며 그것은 한국 민족의 "문화혁명"으로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만들어 낸 강력한 교육 운동이었습니다. 민족이 나라를 잃은 정치적 공백 속에서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과감하게 낡은 부대를 포기하고 새 부대, 새 문화를 복음의 매체로 수용하였던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화혁명의 촉매가 된 기독교교육운동은 교회가 주도하였거나, 주일학교가 선두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교육적 비전도 교육적 시스템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일학교운동마저 교회당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평신도신앙운동이었을 뿐 그것이 교회의 존재양식에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으로 한국기독교교육 제1기는 기독교사회교육이 주도하였으며, 교회 울타리를 넘어 그 시대의 아픔과 호흡하면서 많은 뜻있는 평신도와 몇몇 깨어있던 목회자들이 창출해낸 신앙교육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제1기는 목회자나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평신도들이 주도했던 신앙운동이었던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럼으로 제1기는 교회교육시대는 아니었습니다.

II. 한국기독교교육 100년의 제2기는 1919년에서 1945년까지를 계수할 수 있습니다.

제2기는 극도로 피폐된 정치적 상황, 특히 1919년 3.1 만세사건이후 끝날 줄 모르는 일본인들의 정치적 탐욕으로 채색된 억압정치로 인해 기독교교육운동은 "수면 밑"으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소위 “민족자결주의”와 “평화주의” 선언은 나라잃은 민족의 가슴에 불을 붙이면서 전국 13도에서 200만 명 이상의 학생과 농민이 주권회복을 위한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의거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침략에 저항하였으나 결국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919년 9월 3.1운동이 실패한 이후 남북장로교, 남북감리교, 캐나다장로교, 호주장로교 대표와 선교사대표 B. W. Billings와 E. H. Miller가 종교탄압금지, 신앙의 자유보장, 사학의 자유를 요청하는 강력한 항의로 일본정부를 압박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내선일체’와 ‘황국신민’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내려 압박과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여갔습니다. 이화여자전문을 경성여자전문으로, 연희를 경성공업경영전문으로, 숭실을 대동공업경영전문으로, 세브란스의학전문을 아사히의학전문으로 강제 개명하는데 까지 강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한국어사용금지, 창씨개명, 신사참배 의무화 그리고 극기야 성경과목 폐지 등을 명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45년 5월 해방 3개월 전에는 소위 “전시교육령”을 내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묶어 “학도대”를 조직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결전태세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독교교육운동의 전초에 서 있으면서 사실상 젊은 학생들 속에 신앙과 민족애를 묶어 하나의 ‘열’을 창조해오던 기독교학교는 자진 폐교하던가, 강제로 일본정책을 수용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기독교 교육운동은 일대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까지의 선택적기로에 섰던 것이었습니다.

기독교학교가 존폐위기로 몰리면서 제2기의 기독교교육운동은 국제적 기구와의 유기적 연관

성을 가지고 있었던 “주일학교”와 “YMCA”에 의하여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19년 이후 교회를 향한 일본의 핍박이 가중되면 될수록 거꾸로 기독교인의 수는 날로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새 흐름 속에서 주일학교는 1913년 4월 19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렸던 주일학교대회는 일본정부가 감히 주일학교까지 억압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Underwood 목사가 사회를 하고, 14,700명이 운집하는 (당시 서울의 인구에 비례하여 이것은 경이로운 수였다) 초대형 대회에 Jurich의 세계주일학교대회 대표들이 대거 참가하여 이 대회를 명실공히 강력한 국제대회로 승화 시켰습니다. 이 대회는 일본 총독부에 큰 충격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김폴린,188))

산 증인중의 하나였던 김폴린 교수(감신대)에 따르면 1913년에 불이 붙은 주일학교대회는 1921년 11월 서울에서, 1925년 10월 서울에서(2000명), 1929년 평양에서(10,000명), 1933년 제4차 대회는 대구에서 국제대회의 수준으로 열렸으며, 이 대회에 다녀간 세계 기독교교육 지도자는 9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김폴린, 189)

그러나 1932년 이후 주일학교운동은 그 역동성을 잃기 시작하면서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교훈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한국 교회를 총체적위로 몰고 가는 원인일 뿐 아니라, 기독교교육을 위기로 몰아넣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가 침체에 빠진 이유는 일본인들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한국기독교와 기독교교육의 생명을 지탱해오던 연합운동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교파주의로 분열되면서 함께 세워가던 공동의 작품이 깨지기 시작 한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주일학교연합회의 W. H. Hoover가 타계한 이후 매년 보조비로 지급되던 \$5,000.00이 중단되면서 주일학교운동은 각 교단 교육부의 소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1937년 총회를 마지막으로 연합운동은 끝내 와해되고, 공식적으로 1938년 조선주일 연합회가 해체하게 되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운동은 한때 한국 기독교 연합운동의 효시였으며, 신앙운동과 민족운동을 절묘히 결

합시켜오던 민족교육의 “場”이었으나, 그 역학은 서서히 소멸 되어갔습니다. “운동”되기를 포기하고 점차 교단교육정책의 그늘 속에 제도화되거나 내면화되기 시작하면서 비운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기독교청년운동”의 효시였던 YMCA는 일본인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하의 원시찰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1920년 8월 24일)계기가 되어 오히려 국제화의 물고를 트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상재, 윤치호 등 애국지사들과 65명의 교계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YMCA를 교회연합운동의 새로운 산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산실이 된 YMCA는 1925년에서 1929년 사이 이미 Edinburgh Conference(1910)를 성공리에 이끈 John Mott 박사로부터 조선기독교연합회(오늘의 NCC) 조직을 권유받았으며, 1928년 예루살렘 선교대회에 한국대표를 파송하는 등, YMCA는 교회 안과 밖의 마지막 남은 등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기독교교육 100년의 제2기는 암울하고, 침체되고 좌절로 점철된 비운의 시기였습니다. 3.1운동의 실패와 일본인들의 정치적 억압이 그 외적 원인이었지만, 제2기의 기독교교육은 오히려 “교파주의”가 머리를 들면서 분열로 이어지고, “문화혁명의 운동”을 포기하고 서서히 “내면화”되거나 “제도” 속에 안주하면서 기독교교육은 역동성을 잃기 시작 하였습니다. 한때 이민족의 삶과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가던 하나의 거대한 메타노이아로서의 흐름은 서서히 뒤편길로 한 채 기독교교육은 그 생명을 끝내는 듯 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육의 위기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주일학교는 이 문화혁명의 그루터기로 남아있던 “場”이었습니다.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YMCA만이 정치적인 무대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국제교류와 에큐메니즘의 산실로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꺼져가던 민족운동과 교회연합운동의 남은 불꽃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조직들이 support

community로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한국교회는 교육공동체로서의 자의식도, 비전도,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기독교교육 100년의 제2기는 숭한 역경과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2마저 교회교육시대가 아니라 기독교사회교육이 주도했던 시기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Ⅲ. 한국 기독교 교육 100년의 제3기는 1945년에서 1960년까지를 계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해방이라는 대단원의 엑소더스와 동족상잔이라는 6.25의 역사적 비극이 이 민족을 희열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비극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4.19라는 학생혁명은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정치일정으로 이 민족역사의 흐름을 옮겨놓았습니다.

이 시기의 기독교교육은 “극도의 혼란과 재건을 몸부림한 시기”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은 교회를 건잡을 수 없는 분열로 몰고 갔습니다. 장로교는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되고, 그리고는 신학문제로 또 분열되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신사참배를 핑계로 남북출신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로 분열되었습니다. 다행히 감리교회는 통합하는데 성공하지만, 분열의 불씨는 여기저기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전국을 초토화시켰으며, 이것은 이 민족과 한국교회 앞에 강력한 심판의 message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편승한 운동이 부흥운동이었고 기도원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폐허이후 갈 곳이 없었던 길거리 어린이들은 교회학교를 찾아들어 초만원에 이르는 기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은 기독교학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1기의 기독교교육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 하였습니다. 1938년 해체되었던 조선주일학교 연합회가 1948년 대한기독교교육협회로 부활하면서 주일학교운동을 새로운 체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과서를 출판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

다. 더 나아가 대한기독교교육협회라는 새로운 조직은 계속분열로 치닫는 한국교회를 다시 교회연합의 자리로 묶어낼 수 있는 center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끊어졌던 세계기구와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세계화를 꿈 꿀 수도 있었습니다.

1947년 영국대회, 1950년 Canada Toronto 대회, 1954년 서독 Frankfurt의 세계대회에 유학과 지도자들을 파견하고 세계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일 듯 일어나는 주일학교운동과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열리는 각종 세계대회에서 논의되는 기독교교육의 issue들을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그것들이 전쟁 폐허로부터 솟구치는 이민족의 염원과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가라는 최소한의 고민과 방향설정이 세계대회 참석자들로부터 나왔어야 했습니다. 해외 여행정도로 끝나버리고, 국내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도 연관도 이어가지 못하는 소위 해외여행단골파의 등장은 교회연합운동을 권력화로 몰고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에큐메니칼"꾼"들이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치화를 부채질하는 한국교회의 "독버섯" 이었습니다. 연합운동은 교단 간 나누어 먹기로 변질되고, 기독교교육은 '교재출판'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누어 먹는 밥통으로 서서히 변해 갔습니다.

여기서 기독교교육의 철학과 그 방향을 책임지고 창출해내야 할 지도자들과 주일학교교육 현실사이의 메울 수 없는 불신과 단절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통일공과에서 계단공과로 전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뜨거웠던 주일학교의 열풍을 뒷받침하는 support community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도, 교단교육부도, 신학대학도, 심지어는 교회도 support community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주일학교는 사실상 후견인을 잃은 채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가던 일정 말기, 신앙과 민족운동의 마지막 보루였던 기독교청년운동은 해방과 함께 각 교단별 청년운동으로 분화되면서 장로교회는 “장로회청년회”로 선회하고, 감리교회

는 “감리교청년회”(M.Y.F)로 체제화되면서 YMCA는 교회연합운동의 “場”이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의 유기적 관계마저 끊어지고 교회로부터 서서히 이탈해나간 기독교청년운동은 스스로를 재정비해야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Christian의 “C”를 뺀 YMA로 서서히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기독교교육 100년의 제3기는 한마디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한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열망은 운동으로 표출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데 이 운동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뒷받침해야하는 support community는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비운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분열과 정치화로, 기독교교육협회와 교단교육부는 교재출판에만 집착하면서 support community되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본 강연자는 바로 이 시기에 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군목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학과 기독교교육의 issue가 무엇이었느냐를 묻는다면, ‘혼란’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재건의 몸부림은 난무하였으나,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재건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심점을 잃은 시기이기에 방향이 없었으며, 거기에 원심점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IV. 한국 기독교교육 100년의 제4기는 1960년에서 2000년까지를 계수합니다.

제4기는 바로 우리들의 자리이고 이야기입니다. 1960년 4.19 의거로 한 정권이 물러나고 새 정치를 실험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실험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20년 넘는 군사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모두 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데모꾼이 되었습니다. 정치판 뿐만 아니라 시골 구석구석까지 머리띠 띠고 소리지르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이때 교회는 또 다시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면서 기독교교육도 진보적 교육과 소위 복음주의 교육으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1960년 이후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60년대 귀국한 1세대 학자들, 70년대 등장한 2세대 학자들, 그리고 지금은 3세대 학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폭넓은 전문성을 토대로 세계적인 수준의 논문들, 전문적인 저서들, 날카로운 학문적인 토론을 펼치는 등 괄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각 신학대학마다 기독교교육연구소 하나쯤은 다 가지고 활발한 학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교육학회는 둘이나 있습니다.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교육 전문가들이 전국교회 구석구석마다 교육지도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교회학교로 이름과 체제를 바꾸면서 고도의 교사대학을 통해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교재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교육기술과 방법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 “2020, 어린이없는 교회”가 하나의 경고가 아니라 현실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통계와 그 흐름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100년의 주일학교가 100살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가? 얼마 전 강의석이라는 대광학교 출신의 젊은이가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부당성을 들고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놀랍게도 이 젊은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00년의 역사, 그것도 민족의 중심에 서있던 기독교학교가 종교교육을 하는 한 불법단체가 될지도 모르는 존폐위기로까지 몰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청년운동은 CCM에 매몰된 채 적어도 역사의식과 역사적 책임에 대한 고민마저 포기한 듯한 흐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YMCA운동은 이미 C를 빼어놓은 NGO로 선화한 것은 아닌가? 자살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기독교신자 최진실과 그의 동생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가? 해체의 위험 앞에 노출된 채 “가정”은 신앙과 삶의 양육의 “場”됨을 포기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술한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뚫고 지난 100년 “의료선교”, “기독교학교”, “주일학교운동”, “기독교청년운동”이 심어놓은 신앙의 씨앗들! 이제 겨우 꽃을 피우려 몽우리가 생긴 이 시점에 나무 밑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그 무엇 때문에! 한국기독교교육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표현하면 지나친 경고일까?

저는 오늘 제1강을 마치면서 한없는 죄의식과 자책으로 내 영혼은 찢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비난과 위기 한복판에는 저 자신이 책임져야할 몇 가지 오류와 잘못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한 부분 소위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책도 쓰고, 가르치고, 교사들을 수없이 훈련하고, 교재를 만들고 하는 동안 저는 가장 큰 방법론적인 오류하나를 범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 기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고백한바 있습니다. 하나의 오류는 “기독교교육”이라는 하나의 거룩한 신앙적 사건을, Mary Moore 박사의 말을 인용한다면, “성례전적 행위”를,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메타노이아”를! 저는 그동안 “기독교교육학”이라는 이론의 틀과 잣대를 가지고 분석하고, 규격화하고 다시 임의적으로 재구성하여 현장에 응용하려 함으로 기독교교육의 dynamic-역동성을 사실상 파괴시켜왔다는 깊은 자책감에 빠져왔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 같은 학자인 양 떠드는 사람의 잘못은 100년의 흐름을 지켜온 기독교교육의 frontiers들까지도 '기독교교육학'의 이름으로 그 맥을 끊어놓는 악역을 담당해 온 것을 슬피 자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찬란한 한국 기독교교육의 역사!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sign을 보여주고, 소망을 심어온 “의료선교”, “기독교학교”, “주일학교”, “기독교청년운동”의 기독교교육적 유산은 이 민족과 교회가 이어받은 너무도 소중한 “역사적 유산”들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문턱에서 화려한 역사를 몸에 지닌 기독교교육의 Frontier들이 하나같이 '중병'에 걸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의료선교"는 거대한 병원(제도화)으로 탈바꿈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독교학교"는 종교교육부당성으로 판정되면서 그 존재이유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주일교회학교"는 어린이, 청소년이 떠나가는 뒷모습만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하는 무기력증에 빠져 들었습니다. "기독교청년운동"은 기독교신앙을 떠나 하나의 거대한 시민단체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21세기에도 다시 살아나야 할 기독교교육의 Frontier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조직들이 자신들을 기독교교육의 frontier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Support community가 사라진 것이 비극입니다.

이제 단 하나의 가능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저 같은 기독교교육 학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교육 전문가도 아닙니다. 헌신된 교사도 아닙니다. 다 같이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여기에서 출발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교육 실패의 원흉 중의 하나이므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촌 한구석에 "남은 자"로 세우신 한국교회, 5만 교회를 말하는 한국교회 하나하나가, 크든 작든 교회 하나하나가 "교육적 생태" (educational ecology)로 변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교회교육"을 가져보지 못한 한국교회! 다가오는 100년을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에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작은 교회의 소박한 "교육 시스템"의 회복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내일 제2장에서 뵈겠습니다.

왜 하나님나라 백성공동체여야 하는가?

- 미래교회교육의 패러다임 -

은준관 총장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서론

어제 저는 "한국기독교교육 100년"-역사적 유산과 위기-에서 한국기독교교육 100년의 생명력은 교회교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이러한 "기독교학교", "주일학교", "기독교청년운동"이 창조해 낸, 그래서 기독교사회교육이 창출해낸 예술이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사회교육 3총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학교"는 평준화와 함께 '준공립화'로 변신하면서 그 존재이유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대법원까지 나서서 종교교육부당성을 판결함으로써 기독교학교로서의 존재근거까지 위협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0년 제대로 된 교회의 교육적 시스템과 mechanism에 의해 표출된 제도가 아니면서도, 교회교육의 상징처럼 자리잡아온 ‘주일교회학교’마저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갑자기 어린이 청소년을 잃기 시작하였고,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는 위기에까지 몰림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하 한국기독교교육의 마지막자리를 지켰던 기독청년운동은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을 펼친 이후 대학 내 성경공부그룹으로 변신하거나, “Christian”의 “C”를 뺀 사회운동 내지는 NGO로 선회하고 말았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한국기독교교육 100년의 주역들은 그 무서웠던 힘을 잃었거나,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운동이기를 그치고, 점차 앙상한 제도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1960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위 기독교교육전문가도 많아지고, 학문, 연구 활동도 활발해졌으며, 신학대학교마다 기독교교육학과가 설치되고, 거기서 배출된 젊은 교육 지도자들이 전국 교회에 배치되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실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교육의 흐름은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1장에서 분석한 제 해석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는 이 총체적 위기를 반전(over-turn)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대안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위기를 위기로조차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불감증이 바로 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방법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전”(over-rule)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은 인간이 버린 돌 까지도 드셔서 모퉁이돌로 쓰셔서 집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기에, 그 어느 날, 아니 이 모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신 한국교회를 드실 것이라는 소망의 끈을 저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크든 작든 50,000을 헤아리는 한국교회가 교인 쟁탈전을

중단하고 몸집 늘리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의 눈과 에너지를 어린이 하나하나, 청소년하나하나, 그리고 성인하나하나에로 돌리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들을 목회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과 배움 그리고 섬김의 주체로 수용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의미의 “교회교육”은 시작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래 100년의 기독교교육은 제대로 된 "교회교육" 또는 "교회공동체교육"으로 승부를 걸 수 밖에 없다는 신념에서 제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저는 기독교교육의 풍운아였으면서도 기독교교육의 핵심을 예리하게 포착하였던 Prof. John H. Westerhoff III와의 신학적 대화 내지는 신학적 논의에서 교회 교육의 문제를 풀어 보고자 합니다.

I. John Westerhoff, 그는 한마디로 교회교육의 예언자였습니다.

John Westerhoff는 Duke University, The Divinity School의 기독교교육 교수이면서,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교육이라는 거룩한 행위를 “기독교교육학” 적으로 접근하기를 거부한 풍운아 학자였습니다. 그는 ‘신앙공동체’라는 원초적 공동체와 ‘catechesis’라는 예전적 교육 행위에 모든 학자적 생명까지도 걸었던 현장의 교육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주일교회학교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일찍이 주일학교의 죽음까지 예언했던 70년대 풍운아, 이단자이기도 했습니다. 실은 그의 문제작이 나오던 1970년 초, Duke 대학교 그의 연구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논쟁’으로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연세대 하기세미나에 와서도 한 주간 날 켜 논쟁으로 함께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John Westerhoff 교수가 유명해진 것은 1971년 Values for Tomorrow's Children라는 책에서 그는 ‘Down with school’, 주일학교의 종말을 선언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는 책에서 주일학교죽음의 원인을 폭로하고, 그리고

자기의 대안을 과감하게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 미국교회는 기독교교육의 운명을 ‘교회학교’에 걸고 있었기에, Westerhoff의 도전은 충격을 넘어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 미국 Nashville에서는 주일학교 200주년을 축하하는 뜨거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무렵, 전국에서 모였던 기독교교육 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Westerhoff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일학교 신봉자였던 당시 Princeton신학교의 D. Campbell Wyckoff는 주일교회학교를 “자생적 능력”(reseeding power)가진 신비적 기관, 신의 학교라는 논리를 들어 Westerhoff를 반격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도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한국 교회학교는 그 당시 절정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 논쟁의 승자는 Westerhoff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일교회학교 사망론’은 오늘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분명 예언자였으며, 그의 예언은 적중했고 또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예언과 그 뒤에 깔려있는 그의 논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에 왔습니다.

그의 예언의 논조 첫째는 간단하고도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dictum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역사 이면에는 신앙을 형성시켜 오기보다는 “교육”-pedagogy의 이름으로 가르쳐온 역사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배”(Leitourgia)와 “교육”(Didache)의 분리, 그리고 “선포로서의 설교”(Kerygma)와 “가르침”(Didache)의 분리는 신앙의 유기적 과정을 붕괴시켜 온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교육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message에 경청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교회교육 시스템을 가져 본 적이 없다는 비판 그 뒤의 원인은 ‘신앙을 형성’해 보려는 그 어떤 심각한 시도도 없었다는 데 기인하는지도 모릅니다. 가르치려고만 해 온 바로 우리의 역사가 위기의 원인 그 자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이분화되어 왔습니다. 예배는 성인의 독점물로, 교육은 어린이, 청소년의 의무로 양분화 되면서 한국교회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목회와 교육의 출발점을 상실해 왔습니다.

Westerhoff의 논조 두 번째는 주일학교죽음의 구체적인 원인을 답하는 형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교회학교는 신앙형성의 과정을 무시하고 소위 “학교식”(Schooling), “교수식”(Instructional) Paradigm의 노예가 되어 신앙을 ‘가르치는 일’(고도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보조교재를 덧붙이고, 훈련된 교사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에 집중한 결과 신앙형성도, 신앙공동체형성도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던지는 강력한 message 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Westerhoff는 그의 세 번째 논조,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의 대안은 단호하고 또 분명했습니다. “신앙공동체”(the Community of Faith)와 “catechesis”였습니다. 특별히 신앙공동체는 “예전”(Liturgy), “경험”(Experience), “행동”(Action)을 동반하는 공동체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어린이들의 ‘종교적 문화화’(religious enculturation)와 ‘종교적 사회화’(religious socialization)가 일어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Catechesis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신앙인을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성화으로 이어가는 신앙의 전 순례 과정을 준비하고 양육하는 목회적 사역이라고 명명했습니다.(Westerhoff, A Faithful Church, pp.298-314)

비록 high church 배경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성공회의 전통에서 오는 신학적 해석이기는 하나, 기독교교육을 학교식으로, 교사중심으로 여전히 구조화하고 있는 우리에게 Westerhoff의 도전은 영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신앙공동체’를 기독교교육의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그리고 신앙형성의 ‘장’으로 풀어나가는 그의 예지는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II. John Westerhoff 를 넘어서서

새로운 100년을 향한 한국기독교교육이 John Westerhoff가 던진 두 가지 교훈을 ‘준거틀’(frame of reference)로 삼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dictum입니다. 이는 지난날의

교육적 구조와 과정 그리고 방법과 현장까지도 ‘페다고지’(pedagogy)로부터 ‘안드라고지’(andragogy-인간중심의 교육)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둘째는 ‘신앙은 신앙공동체를 통해서만 종교적 사회화가’ 가능하다는 dictum이었습니다. Liturgy, Experience, Action라는 신앙공동체의 구성은 catechesis라는 양육과정(세례로 부터 시작하여 성화와 새 땅과 새 하늘에 이르기까지의 신앙의 순례를 뒷받침하는)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교회론’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Westerhoff의 교육신학에는 두 가지 오류가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음은 그의 ‘신앙공동체론’에는 ‘종말론’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Catechesis가 추구하는 순례 과정은 있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종교적 문화화 내지는 사회화’ 과정이었을 뿐,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종말론적 순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신앙 공동체론은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백성 사이의 만남이고, 응답이며, 역사속의 대변이라는 metanoia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신앙공동체론과 catechesis는 교육학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한공동체의 융합, 유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신학적 교회론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비록 한계상황에 놓여있기는 하나, 200년의 기독교교육을, 더욱이 한국민족 교육과 신앙교육의 아방가르드였던 주일교회학교를 무차별 매도하고, 그 죽음을 선언한 그의 예언은 무책임 한 것이었다고 보기 때문 입니다. 비록 1981년에 쓴 그의 글은 주일학교의 역사적 공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주일학교는 죽거나, 치유될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A Sunday School may die or suffer from terminal illness..)(Westerhoff, A Faithful Church, p294) 라는 말로 그의 신념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교회학교론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개혁론자입니다. 그 역사적 유산은 포기하고 다른 대안으로 대처하는 either/or의 선택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00년 미래 기독교교육에는 주일교회학교의 유산은 보전되어야 하며, 재평가를 거쳐, 소중한 교육의 '장'으로 다시 되살려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III. 왜 하나님나라백성(Loas tou Theou)이어야 합니까?

저는 여기서 처절했던 제 실패를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30년 저는 소위 신학자로, 기독교교육학자로 책을 쓰고,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전국을 누비며 교사훈련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때로는 학문적 성취감에 도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새 millenium이 시작되던 2000년 어느 날 교회학교가 중병에 걸려 Westerhoff가 예언한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몇 가지 data와 지표에 접하면서, 솔직히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비통함과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잘못을 저질러 왔는가를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저 같은 소위 학자들에게 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독교교육이라는 거룩한 공동체적 행위를 제가 만들어낸 학문적 ideology와 '틀'을 가지고 분해하고, 재단하고 뜯은 다음에 다시 꿰매는 무서운 방법론적 오류를 범해왔음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30년의 공든 탑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자책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여기서 Westerhoff의 신앙공동체론은 하나의 '영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Westerhoff의 약점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거대한 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는 2001년에서 2002년, 그리고 2003년에서 2004년으로 이어졌던 "어린이-청소년교회" 실험이었습니다. 시행착오 못지않게 무한의 가능성을 포착한 계시적 순간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6년차에 들어선 실천신학대학원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 세우기 실험입니다.

왜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여야 하는가? 수많은 교회론들 중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Laos tou Theou 공동체론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인가?

2000년 역사 속에 형성되어 온 교회론들을 Avery Dulles는 "제도" (institution), "교제" (communion), "성례전"(sacrament), "선포"(herald) 그리고 "섬김"(servant)으로 모형화 한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론들은 "교회의 양식" 내지는 "교회의 사역"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교회의 존재 그 자체이거나, 존재의 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체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비극은 생명 그자체가 아닌 존재양식들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존재 그 원인인 것처럼 우상화하고 있음에 기인합니다. 교회교육도, 주일교회학교도 프로그램에 노예가 되어, 그 뒤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데에 실패의 원인이 깃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입니까? 그것은 성서에 등장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image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역이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통치(Basileia)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laos tou Theou)이 응답하고 또 함께 만들어 낸 공동체가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세상에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의 주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회에 있어서나, 교육에 있어서 사람들을(어린이에서 모든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은데서 목회와 교육의 본질을 잃어 왔습니다.

교회교육의 회복은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system보다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나라백성으로 회복하는데서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IV. '이스라엘'과 '초대교회'는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정치집단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Laos tou Theou)이었다는 신학적 전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원초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출.6:7)라는 언약은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구현되었다는 사실에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역사-종말론적'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며 동시에 책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종말론적공동체'인 이스라엘은 단순한 '신앙공동체'도, '종교집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인도하심 앞에서 응답해야 하는 종말론적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 일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은 존재양식의 소명을 받습니다. '거룩한 백성'(holy nation)이 되는 것과 '제사장 나라' (priestly kingdom)가 되는 소명을 받습니다. (출19:6)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모든 존재의 구심점을 하나님께 두는 한 거룩한 백성이었으며, 모든 에너지를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열어 놓았을 때(원심), 이스라엘은 '제사장나라'로 현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애굽과 시내산을 뒤로 하고(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 일회적 사건) 약속의 땅을 향해 기약 없는 순례길에 오른 때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됨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야 하는 민족적 test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성막"(Tabernacle)이 등장 합니다., 그곳에서 각종제사와 교훈이 이루어졌던, 그래서 성막은 처음부터 종교와 교육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강력한 종교적system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동용 천막', '법궤와지성소', '성소', '성막 뜰', '제사장' '레위족',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는 하나의 system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다면 성막은 교회교육이 추구해야할 syste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좋은 예증

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은 더 중요합니다. 스테반이 "광야교회"라 불렀던 이 성막에서 순례하는 이스라엘민족이 드린 "유월절"제사가 다른 모든 제사보다 highlight였던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살아있는 organism으로 변화시켜나간 '그 무엇'이 무엇이었던가? 시스템과 organism사이를 메우지 못해 성인들은 '영적 피곤함'에, 어린이-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한국교회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제사의 핵심은 어떤 형식의 제사행위인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애굽의 하나님, 시내산 언약의 하나님의 단한번의 절대적인 구원과 약속을(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광야순례의 한 중심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 "현재화"하는, 오늘 속에 '재연'하는 민족적인 "역사적 기억"(historical remembrance)의 행위였습니다. 뒤집어보면, 이스라엘은 이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유월절제사를 반복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을 해방시킨 "출애굽"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그들의 현재 속에 '재연'하고 또 '현재화'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Lewis Sherrill이 말하는 Being in Becoming의 과정이었습니다.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being이었다면, 광야에서의 유월절제사와 그것을 통한 역사적 기억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metanoia)시켜간 becoming이었습니다. 이 민족적 metanoia는 한 집단에 융합 내지는 적응을 위한 단순한 제도적, 종교적 사회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는 공동적인, 종말론적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종말론적인 being in becoming과정은 성막이라는 종교 system을 살아있는 교육적인 organism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가나안 이후의 가정의 "쉐마"(shema)도 이 민족적인 '역사적 기억'이라는 종말론적 행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쉐마(신 6:4-9)는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살아있는 양육적 organism으로 만들어간 역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교육행위가 아니라, 이

스라엘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백성이 되어가는(becoming) 과정이었습니다. 미래 교회교육의 설계는 공동체적인 being in becoming의 틀에서 이해되고 또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공동체로부터 보다 직접적인 영감과 교훈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공동체'(토라적인), '안디옥 공동체'(헬라적인), '팔레스타인 공동체'(종말론적인)로 명명되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O. C. Edwards, Jr. "The New Testament Church", A Faithful Church, p.10ff)

다양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단하나의 사건으로 부터 시작된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신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임하는 기이한 역사를 성령의 능력주심 안에서 보고, 경험하고 모여든 무리들, 사람들의 회집이었으며(하나님나라백성), 그들의 모임은 처음부터 '종말론적 회집'(eschatological gathering)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따라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의 system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위한 가정', 그리고 그 안에는 사도, 예언자, 교사, 병 고치는 자, '방언하는 자', '방언해석하는 자' 그리고 '부자' '가난한자' '이방인' 등이 모여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leitourgia), '가르침'(kerygma and didache), '떡을 떼는 일'(breaking the bread), '재산을 나누는 일'(communalism and service)이라는 공동체적인 구조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사도들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가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being).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이 아닌 제8일 주일날,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에 예배를 드려야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부활하신 생명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생명의 참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도들의 가르침(kerygma/didache)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일'로 모임은 모든 형제와 자매를(가난한자, 이방인 모두) 하나님나라 교제에로 초청하고 있었습니다.(koinonia) 그리고 그들은 '필요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diakonia)

그것은 마치 유월절 제사가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 기억을 통해 오늘 속에 '현재화'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배', '가르침', '교제', '섬김'이라는 종말론적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현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 주심 안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나라의 임재와의 만남과 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백성으로 초대된 초대교회는(being)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종말론적 행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나라백성으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becoming). 이것은 공동적인 metanoia로 어지고, 시스템은 살아있는 organism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교회이고, 교회교육이고, 시스템과 organism의 모형입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던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의 약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속에 끊임없이 "현재화"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모든 하나님백성의 종말론적 헌신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었으며,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하나님백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그 시스템으로 인해 타락의 징조들이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나라의 임재 앞에 끊임없이 metanoia로 응답하는 하나님백성이 여여간 종말론적 헌신이 시스템을 살아있는 organism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찾고 있는 교회교육의 모형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는 Dr. Moore께서 말하는 “transformed community”이며 동시에 “transforming community”로 표현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Mary Elizabeth Moore, Education for Continuity and Change)

V. 21세기 교회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니까?

100년의 화려했던 과거와 오늘의 위기 그리고 미래 100년의 새로운 설계를 다시 짜야하는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한국기독교교육의 운명을 결정짓는 빈 공간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Key를 돌려야 하는가라는 방향 설정은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의 운명을 결정하는 momentum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교육학자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들은 후발주자,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주역이 되면 현장은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미래는 새로운 모형창조에 모험을 거는 목회자 300명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이 창조적 모험에 참여할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 300교회면 충분 합니다. 바로 여러분일수 있으며, 여러분의 교회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 것인가요? 지난 100년을 화려하게 수놓은 '기독교학교'에서 시작할까요?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교회학교'에서 다시 시작할까요? 주일학교는 반드시 되살려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교육의 비전과 시스템 구축 그리고 organism이 살아나는 새 틀 안에서만 가능하며,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하는 고통스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독교가정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니까? '기독교사회교육'은 외면해도 좋은가요?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독교교육현장들이며, 미래 기독교교육의 frontier들로 다시 살아나야할 가장 소중한 현장들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신앙과 삶 그리고 섬김이 test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현장들이 '자생적 능력'(reseeding power)를 잃었다는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멸될 수도 있을 만큼 허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교회만이 할 수 있으며, 교회만이 해야 할 절체절명의 소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교육시설을 갖하기에는 한국교회는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문제는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하는 소박한, 아주 소박한 패러다임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교육적 비전을 다시 세우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거기에 신앙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organism 은 다시 살아 날수 있는 잠재력이 한국교회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소멸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한 번도 갖추어 보지 못한 교회교육 시스템이지만, 남은 것은 5만 교회 뿐이기에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된 것입니다.

저는 다음 몇 가지를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교회교육의 회복, 교육 system 구축의 최우선 순위는 교회를 목사님들의 소유로 부터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로 다시 돌려놓는 진통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회의 새 패러다임을 의미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나라백성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목회와 교육의 대상으로 부터 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존과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신앙의 주체로 서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교육은 시작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신앙의 정체성(being)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며, 이는 metanoia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 그 다음은 목회자의 정체성회복입니다. 루터의 표현처럼, "목사는 평신도사역을 돕는 한 목사이다" "목사직"으로의 부르심은(being)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를(어린이에서 성인모두) 하나님나라백성으로 세우는 한 목사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becoming) 여기서 목회와 교육이 절묘한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교육목회'라 합니다.

3. 이어지는 세 번째 전략은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를 신앙과 교육의 system화하는 단계입니다.

다. 모든 교회구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백성사이의 만남과 응답을 매개하는 "종말론적 통로"로 과감히 전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공동예배”(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날)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백성사이의 만남과 응답의 종말론적 통로로, “성서연구”(수요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순례하는 과정으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목요일, 금요일저녁, 가정에서)는 하나님나라교제의 미리 맛봄으로서의 교제와 지역 사회속의 누룩공동체로서, 그리고 주간(주님의 부활에서 시작되는 종말론적 리듬)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증언 과 섬김의 구조로 전환하는 시스템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목회자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며, 교회임원, 또는 제직들과의 깊은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는 공동적 결의과정을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이과정이 가장 소중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회학교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학교를 포기할 수도, 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오늘의 교회학교는 한계에 이르렀고, 그 안에 자정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안의 잠재력은 무한에 가깝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제가 2년에 걸쳐 실험한 '어린이교회' 프로젝트는 기적에 가까운 경험이었기에 분명히 증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이교회로의 변신이며' 동시에 '교회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로의 과감한 전환을 모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5만을 헤아리는 한국교회 하나하나가 어린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어린이는 교사의 교육 대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신앙과 배움 그리고 섬김의 주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청소년교회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모험이고 가능성입니다.

4. 끝으로 저는 교회교육이 다시 살아나는 마지막 전략을 논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system이

잘 형성되었다 하더라도(물론 형성과정이 곧 교육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 신앙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원리는 하나입니다. 유월절 제사가 출애굽의 역사적 기억행위였듯이, 초대교회 예배와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사건의 역사적 기억행위였듯이, 예배(어린이교회 예배도), 성서연구(어린이교회-교실교육), 교제 그리고 섬김은 교회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들이 "종말론적 통로"(Alexander Schmemmann)가 되어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또 응답하는 신앙적, 역사적 사건으로 모두를 초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교회실험은 한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린이교회에서의 어린이들의 주체화와 참여는(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그들을 computer와 공교육의 피곤함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리고 삶과 신앙의 주역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계기가(metanoia)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교회는 잃어버린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와 학원이 할 수 없는 삶의 변화, 그것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데서 시작하며, 그들을 신앙의 주역으로 참여시키는데서 비롯됩니다. 1000만 신도 하나하나를 한국교회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교회신자로 묶어두는 한, 교회교육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나라백성으로 초대하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는 metanoia는 불길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때 시스템은 살아 있는 organism으로 변할 것입니다.

결론

기독교학교교육, 주일교회학교교육, 기독교가정교육, 기독교사회교육을 다시 살리는 길은 마지막 남은 교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봉헌하는 결단입니다. 교회의 조직 속에, 교회성장 이데올로기 속에, 심지어는 우리 목회와 교육의 틀 속에 묶어둔 신자 하나하나를 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고 백성입니다. 그들을 하나님나라백성으로 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127:1)*

이 말씀은 한국교회의 미래100년의 기독교교육을 새로 설계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로서의 교회교육!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제3기 감리교청소년목회전문훈련과정

다음세대를 세우는
청소년사역자

펴 낸 날 2012년 8월 20일

펴 낸 이 김기택

역 은 이 이화식

편 집 정현범 임기선

홈페이지 <http://www.kmcedu.or.kr>

이 메 일 kmcedu@chol.com

인 쇄 리더스커뮤니케이션(02-2123-9996)